



World / HAUS OF MATTERS  
하우스오브매터스

ISSUE 23



> billy woods in The Wire 496, New York, April 2025.  
Photo by Matt Genovese

## INTRODUCING

LOVE ON DIGITAL by DESTIN CONRAD  
Of the World by quinn  
Jonatan by Yung Lean  
Glockaveli by Key Glock  
Pinball 2 by MIKE & Tony Seltzer  
Midnight Blassic by ApolloRed1  
Unmusique by Lucy Bedroque

## FULL REVIEW

Lifetime by Erika de Casier  
Fancy That by PinkPantheress  
GOLLIWOG by Billy Woods  
Sincerely by Kali Uchis  
13 Months of Sunshine by Aminé

## CLASSIC

The Unseen by Quasimoto  
Ye by Kanye West

## FEATURE

- <sup>1</sup> 제 4회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sup>2</sup> 사람들은 왜 DoeChii를 싫어할까?

## EDITOR'S PICK

八方来财 by 摊佬 (SKAI isyourgod)  
Worlds by Porter Robinson  
Basspunk 2 by Bassvictim  
The Film by Sumac & Moor Mother  
Face Down In The Garden by Tennis  
The Scholars by Car Seat Headrest

## EDITOR

blvckmvttter  
denim  
moogsick  
ryuzimoto  
SONGCHICO  
loding  
SRUKSAN  
감상주의(KMSNJUI)  
자카  
온암

## DESIGNER

잠소

# INTRODUCING

〈LOVE ON DIGITAL〉 by DESTIN CONRAD

〈Of the World〉 by qui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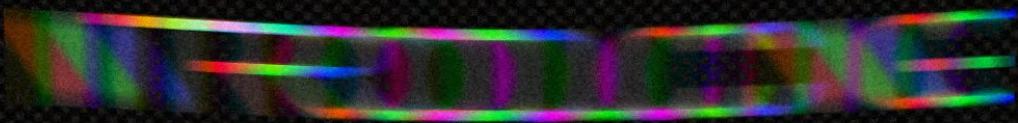
〈Jonatan〉 by Yung L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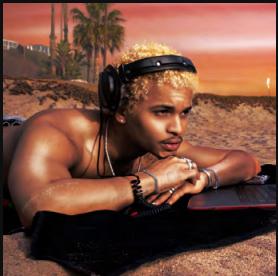
〈Glockaveli〉 by Key Glock

〈Pinball 2〉 by MIKE & Tony Seltzer

〈Midnight Blassic〉 by ApolloRed1

〈Unmusique〉 by Lucy Bedro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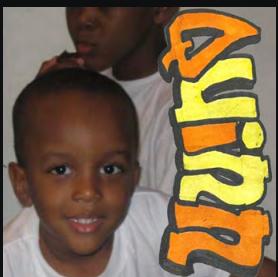


Album	LOVE ON DIGITAL
Artist	DESTIN CONRAD
Released	25. 4. 25
Tracklist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KISSING IN PUBLIC</li><li>2. MR. E</li><li>3. SOFT SIDE</li><li>4. BAD BITCHES</li><li>5. DELUSIONAL</li><li>6. PARTY WIT U</li><li>7. JUMPIN'</li><li>8. THE LAST TIME</li><li>9. MAKE IT UP</li><li>10. YOUR LADY (INTERLUDE)</li><li>11. CARI'S HONEYMOON</li><li>12. FMU!</li><li>13. P.B.S.</li><li>14. SO NICE</li><li>15. OUTRO</li></ol>

EDITOR  
감상주의  
(KMSNJUI)



데스틴 콘라드(Destin Conrad)는 〈LOVE ON DIGITAL(디지털을 위한 사랑)〉에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공언하였다. 첫째로는 디지털 시대의 알앤비 음악을 향한 애찬, 둘째로는 반대로 디지털상에만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한 아쉬움. 주홍빛의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태닝 중인 본인의 모습과, 노트북이나 헤드셋 등의 오브제라는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가 과연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적극적인 육체의 운동 및 자기표현, 그리고 접촉을 통한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청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KISSING IN PUBLIC"에서부터 Daniel Caesar와 Usher가 석양을 등진 바베큐 파티에 함께 있는 듯한 그의 목소리로 하여금 그 욕망이 훤히 보인다. 작품 전반에는 얼터너티브 알앤비를 향한 짙은 향수가 베어 있다. 이를테면 Frank Ocean, Miguel, Tinashe 등이 떠오르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이제는 벌써 레트로라고 불릴 때에 접어든 것이다. "BAD BITCHES"에 Kehlani를 게스트로 참여시킨 전략은 그래서인지 감회가 새롭다. 보컬에서 뿐만 아니라 허스키한 관능으로 뜨거운 일상 — 약간의 쿠어 코드를 보태면서도 — 을 노래하는 것 역시 그때의 것에 가깝다. 〈COLORWAY〉 EP에서부터 자신의 전부 된 장르 문화와 감정적 교류에 대한 애착을 보인 그이기에, 본작에서의 스타일도 나름대로의 뚝심으로 읽히게 된다.



Album	quinn
Artist	of the world
Released	25. 4. 25
Tracklist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No Time No Mercy</li><li>2. All the Things</li><li>3. Affirmations</li><li>4. Didn't I</li></ol>

EDITOR  
감상주의  
(KMSNJUI)



그녀의 실험은 늘 반은 환멸, 반은 호기심에 의하여 탈피와 확장을 거듭해 왔다. 저마다 스타일도, 분위기도, 감정도 천차만별에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지만 — 그럼에도 특정할 만한 형식은 있다. 그것은 콜라주다. 그녀에겐 자신의 감정, 탐구심, 영향, 열정, 그 밖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다. 그녀의 정규 앨범들은 밴드캠프의 EP 쪼가리들이나 'user-574126634'라는 사운드클라우드 계정에 널브러져 있는 온갖 실험 데이터가 때로는 요란한, 때로는 정제된 모양새의 재구성이라고 보면 될 테다. 그러던 그녀가 올해 〈stars fell on trench〉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예고했다. 옛 팝송들을 Dean Blunt 식으로 조각내고, DORIS 식으로 라디오-친화적이게 변조하는 데 온 관심이 쓸린 듯하다. 〈of the world〉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신 방향이 더 좁혀졌다. 초창기 Kanye West가 떠오르는 풍성한 소울 샘플 네 곡이 전부다. 어릴 적 사진의 커버는 2023년 이후 싱글들 덕분에 낯설진 않지만 괜스레 더 뭉클하게 만든다. 전작의 키워드가 뉴트로였다면, 본작의 키워드는 작정하고 '노스탈지어'인 것이 아닐까. 언제 또 자취가 틀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녀의 삶을 응원하는 내겐 트라우마 대신 추억으로 꾸민 별것 없는 소품들이 훨씬 마음이 놓이고 보기에도 좋다.

*Jonatan***Album** *Jonatan***Artist** Yung Lean**Released** 25. 5. 2

**Tracklist**

1. Jonatan Intro
2. Might Not B
3. Forever Yung
4. Horses
5. Paranoid Paparazzi
6. Babyface Maniacs
7. I'm Your Dirt, I'm Your Love
8. Teenage Symphonies 4 God (God Will Only)
9. Changes
10. My Life
11. Swan Song
12. Terminator Symphony
13. Lessons From Above

EDITOR  
denim

조나단 아스타드에겐 두 자아가 있다. 클라우드 랩의 창시자로 2010년대 힙합 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 린(Yung Lean), 그리고 영 린이 할 법한 음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를 탐험하는 jonatan leandoer96. 그는 넘쳐흐르는 창작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 자신을 구분한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와 정반대 — 재능은 넘쳐흐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자아가 분열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찾게 된 계기는 약물 과다복용과 친구의 죽음, 그리고 연이은 비극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가족과의 재회였다. 스웨덴 시골에서 요양하며 그는 창작의 기준을 세간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행복으로 삼게 된다. 그렇게 태어난 *<Jonatan>*은 본명을 제목으로 내세운 자전적 작품이다. "Might Not B"의 불안한 루프, "Paranoid Paparazzi"의 왜곡된 전자음, 그리고 "Swan Song"의 장엄한 스트링 등의 다채로운 사운드가 넘실대는 앨범의 프로덕션은 전반적으로 jonatan leandoer96 명의의 앨범에 가까운 결을 지닌다. 그러나 어떤 사운드 위에서도 영 린은 늘 모노톤의 목소리로 과거 '이모 랩의 왕'이 아닌, 자신의 사랑, 아픔,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낸다. 그의 발견을 대중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Jonatan>*이 지나치게 자전적이다. 감정의 층위는 깊고, 사운드는 불규칙하며,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이제 그는 남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다. 15년 가까이의 세월 끝에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내었고, 그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앨범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낀다.

**Album** *Glockaveli***Artist** Key Glock**Released** 25. 5. 2

**Tracklist**

1. KISSING IN PUBLIC
2. MR. E
3. SOFT SIDE
4. BAD BITCHES
5. DELUSIONAL
6. PARTY WIT U
7. JUMPIN'
8. THE LAST TIME
9. MAKE IT UP
10. YOUR LADY (INTERLUDE)
11. CARI'S HONEYMOON
12. FMU!
13. P.B.S.
14. SO NICE
15. OUTRO
16
17
18

EDITOR  
자카

*<Glockoma 2>*의 성공 이후, 많은 힙합 팬들은 키 글락(Key Glock)의 다음 행보와 이미 몇 차례 예고된 그의 새로운 앨범 *<Glockaveli>*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예고 이후 마침내 베일을 벗은 *<Glockaveli>*는 정확히 예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의 랩과 플로우는 여전히 정제된 채로 근사하게 훌려가고 있으며, 피처링 없이 홀로 앨범을 이끌어 나가는 태도 역시 그의 캐릭터가 훌륭히 반영된 시도였을 테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Glockaveli>*는 *<Glockoma 2>*의 아류격 앨범으로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트랙들이 유사한 구조와 분위기로 이어지며 뚜렷한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는 사실은 다소 단조롭게 다가오며, 몇몇 샘플링은 오히려 기존 명곡과의 비교를 불러일으켜 힘을 잃는다. *<Glockaveli>*가 실패한 앨범이란 소리는 아니다. 여전히 본작은 준수한 멤피스 랩 음반이다. 단지 지나치게 예상된 범위 내의 음악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키 글락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이제는 틀 안에서의 반복을 넘어서는 실험이 필요하다.



Album Pinball 2

Artist MIKE & Tony Seltzer

Released 25. 5. 7

Tracklist

- |                              |  |
|------------------------------|--|
| 1. Sin City                  | 11. DONT FORCE IT                      |
| 2. Dolemite (feat. Lunchbox) | 12. Hell Date - feat. Sideshow         |
| 3. #71                       | 13. Splat!                             |
| 4. WYC4                      | 14. Shaq & Kobe<br>(feat. Niontay)     |
| 5. Golden Dragon             | 15. Amiri                              |
| 6. Money & Power             | 16. Jumanji<br>(feat. Earl Sweatshirt) |
| 7. Belt                      | 17. Chest Painz                        |

EDITOR  
moogsick



Album Midnight Blassic

Artist ApolloRed1

Released 25. 5. 16

Track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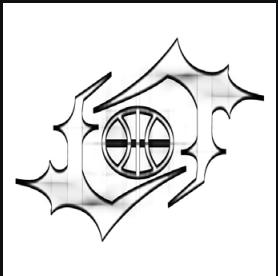
- |                   |                      |
|-------------------|----------------------|
| 1. PBrazY         | 11. Tom Holland      |
| 2. Beauty Pageant | 12. Halo             |
| 3. Georgia Boy    | 13. Honest           |
| 4. Ready2Purge    | 14. Chanel Shooter   |
| 5. Hallucinating  | 15. Drug Love Demo 2 |
| 6. Face Tattoos   | 16. Back to that     |
| 7. Gotta B        |                      |
| 8. XO Tourlyfe    |                      |
| 9. Rick Addition  |                      |
| 10. Delta         |                      |

EDITOR  
SONGCHICO



〈Pinball〉 시리즈는 마이크(MIKE)의 기존 디스코그래피와 철저히 반대된다. 근래 내놓은 두 솔로작 〈Burning Desire〉와 〈Showbiz!〉에서 익숙한 앱스트랙 힙합 명인의 면모를 드러냈다면 그 사이 위치한 토니 셀처(Tony Seltzer)와의 합작은 마치 매력을 번갈아 보여주겠다는 듯 한결 트렌디하고 가볍다. 마이크의 래핑 역시 프로듀서가 짠 트랩과 플러그의 혼방에 기묘하게 감겨 들어갈 정도로 맞는 옷이기에 두 아티스트의 다재다능함을 뽐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첫 시리즈에 비해 1.5배가량 늘어난 볼륨으로 찾아온 〈Pinball II〉는 더 많은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투입된 앨범이다. 시카고에서 들어야만 할 것 같은 "Sin City"로 포문을 연 작품은 멤피스와 찰드 앤 스크류드를 오가며 활기찬 중량을 자랑한다. 피치 업/다운 보이스를 적극 활용하거나 사운드 운용의 폭을 넓히고, Lunchbox와 Earl Sweatshirt라는 상반된 스타일의 게스트를 대동하는 등 이들의 확장은 일견 성공적인 듯하다.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이 숨어 있다. 결국 11트랙 전체를 다르게 꾸려내는데 성공한 전작과 다르게 필러 트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특히 "Prezzy"를 기점으로 유사한 작법을 반복하는 중후반부가 제일 큰 비교 대상이 된다.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에 탁월한 엔딩 "2k24 Tour"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대감에 비해 아쉬울 뿐 준수한 음반임은 분명하지만 어쩌겠는가. 우린 이미 마이크의 최전성기를 목격하고 있기에 기준 역시 높아졌을 뿐이다.

레이지 씬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이 판에서 플레이보이 카티(Playboi Carti)와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폴로레드(ApolloRed1)는 태생부터 '레이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티스트다. 카티의 사촌으로 알려진 그는 OPIUM의 공동 설립자 opiumbabii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등장하고, 카티의 스타일리스트이자 측근인 Mitch Modes에게 언급되면서 OPIUM 합류설이 기정사실처럼 번졌다. 여기에 더해 아폴로레드는 직접 F1LTHY와 작업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YSL에 합류한 Nine Vicious가 그를 향해 "00YSL"이라는 해시태그를 쓰기도 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발매된 본작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그가 OPIUM이 아닌 YoungVampLife의 첫 번째 멤버로 데뷔했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주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본인의 앨범을 완주했다. 영세한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막강 상태의 사운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며, F1LTHY가 제공한 하이엔드급 비트 위에서도 이따금씩 인상적인 코러스를 완성했다. 아폴로레드가 이 정도의 이목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아티스트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발견이었다. 다만,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뱅어' 트랙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XO Tourlyfe"나 "Ready2Purge"처럼 훌륭한 사운드와 그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강한 인상을 남긴 곡들은 확실히 뱅어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나머지 트랙들은 다소 평이하고 무난한 수준에 머물렀다. 앞선 '레이지 유망주'들이 제대로 치고 올라오지 못한 지금, '카티 수저'를 뛴 아폴로레드의 등장은 분명 레이지 씬에 긴장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역시 기존 유망주들과 유사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은 향후 행보에 있어 불안 요소로 남는다.



---

Album	Unmusique
Artist	Lucy Bedroque
Released	25. 5. 16

---

EDITOR  
자카



Tracklist	1. Speakers Never Learn 2. G6 Anthem 3. Ultraviolet 4. 2010 Justin Bieber 5. Smackdown 6. Fenty Face 7. Made In Italy 8. Tout Naturel 9. Finish Him 10. Ouija	11. I Am Impossible 12. Cara Mia 13. Ignorant 14. One Of Us Is Lying 15. Unmusique 16. Cat's Eye 17. Yes, You May
-----------	--	---

---

2020년, Playboi Carti의 〈Whole Lotta Red〉에서 Jane Remover의 〈Revengeseekerz〉에 다다르기까지, 잠깐의 유행 끝에 금세 사그라질 것만 같았던 레이지란 장르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실험을 꾀해가며 그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레이지는 앞서 언급한 Jane Remover와 Ken Carson으로 대표되는 — 과잉스러운 EDM 사운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광란의 흐름으로 정착하였다. 얼마 전 deadAir에 입사한 루시 베드로크(Lucy Bedroque)의 새로운 믹스테입 〈Unmusique〉 역시 이러한 흐름에 완벽히 뛰어들기에 이른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루시 베드로크의 음악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한국의 MMORPG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몽환적인 이미지에서 착안해 소위 'Maplekore'라 불리는 목가적인 사운드 일 테다. 그러나 〈Unmusique〉에서 그는 그러한 감수성을 과감히 덜어낸 채, 보다 정제되고 과격한 형태의 음악을 구현해낸다. "Ultraviolet"는 설탕 덩어리 같은 신스와 미친 듯한 템포로 폭발을 유도하는 본작의 하이라이트 트랙이며, "2010 Justin Bieber"에서 그는 비트를 갑옷으로 기능하게 만들며 광란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한 〈Unmusique〉에는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의 레이블 데뷔 앨범이니만큼, cranes, skai, ivvys, 9lives, egobreak와 같은 많은 프로듀서들이 힘을 보태 Gigi Masin, Linkin Park, Green Day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샘플링의 비트들이 가득하다. Pitchfork의 평론가 Kieran Press-Reynolds는 앞선 문장에서 언급한 현재의 레이지를 가리켜 'Rage 2.0'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심장 한가운데에서 가장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인물은 바로 루시 베드로크이다.

# FULL REVIEW

- ⟨Lifetime⟩ by Erika de Caiser
- ⟨Fancy That⟩ by PinkPantheress
- ⟨GOLLIWOG⟩ by Billy Woods
- ⟨Sincerely⟩ by Kali Uchis
- ⟨13 Months of Sunshine⟩ by Aminé

Erika de Casier



Lifetime

에리카 드 카지에르(Erika de Casier)의 4번째 정규 앨범 <Lifetime>에 관한 본격적인 담론을 나누기 전, 우리는 2020년대에 들어 젊은 세대들에 의해 설파되기 시작한 'Y2K 에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Britney Spears, Aaliyah, Janet Jackson, Destiny's Child를 비롯한 젊은 디바들이 로우 라이즈 진을 입고, 미니멀한 드럼 머신 위에서 리버브가 잔뜩 걸린 R&B를 노래하던 2000년대 초반의 그 시절을 우리는 Y2K라고 부른다. 디지털 문화의 급부상으로 전 세계에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던 이때의 음악에서 사랑과 슬픔이라는 감정은 보다 연극적이고 꾸며진 채로 표현되었고, 이가 유례없던 팬데믹이라는 대재앙을 경험한 현 세대에 의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이 시절의 낭만과 향수를 본인들의 음악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이가 과연 본인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과연 잘 모르겠으나 말이다. PinkPantheress는 정글(Jungle)과 UK 개러지(UK Garage) 등의 장르들을 통해 2000년대 초반 클럽 음악들을 본인만의 색으로 재해석하였고, Charli XCX는 <BRAT>이라는 팝 음악의 새로운 청사진을 통해 2000년대 인터넷 문화를 노골적으로 참조하였으며, 국내의 NewJeans 역시 Y2K 댄스 팝과 2000년대 MTV 스타일의 비디오들을 선보이며 완전한 Y2K 컨셉을 구현했다.

에리카 드 카지에르는 본인의 음악 경력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Y2K를 향해 끝없는 찬사를 보내오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앞선 문단에서 언급한 아티스트들과 에리카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타 아티스트들은 Y2K라는 하나의 시대를 본인만의 음악과 색깔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 에리카는 이때의 감정 표현 방식과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리카는 본인의 음악에서 반복적으로 리버브가 번져 흐릿해진 보컬, 공기를 한껏 머금고 있는 신시사이저, 최소한의 드럼 머신을 선보였고 — 그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 위에서 여러 감정들을 그저 암시하고 흘려보내는 식으로 전달하였다. 에리카는 그 누구보다 감정을 절제한 음악을 선보이며, Y2K의 미학을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Lifetime>*은 그녀의 이러한 방향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Janet Jackson의 *<Janet.>*, Madonna의 *<Ray of Light>*, Sade의 *<Love Deluxe>*가 미학적으로 가리키는 삼각점을 중심축으로 삼아 앰비언트풍의 신스와 드럼, 그리고 고전적인 디지털 샘플링들을 조화롭게 엮어 이루어진 *<Lifetime>*은 에리카 본인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Y2K 세계관이 구축되었다. 나아가 과도한 피처링 의존도로 그녀 고유의 색을 탁해지게 만들었던 전작 *<Still>*과 달리 본작은 오롯이 그녀의 힘만으로 제작되었고, 또한 본인의 레이블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표되었으니 어떠한가.

본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바로 앨범에 전반적으로 차용된 페이드인 기법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Lifetime>*에서 그녀는 Y2K의 향수를 당시 사운드를 구성했던 핵심 요소들 — 느릿하고 공간감 있는 비트, 적절히 딜레이 걸린 신스 패드, 잔향이 길게 남는 보컬 처리 — 을 최소한의 장치로 끌어와, 2020년대의 사운드 미학과 결합해 재배열시키는 방식으로 구현해내었다. 이 때문에 앨범의 모든 트랙들이 마치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소리의 스펙트럼과 디테일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기법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본 트랙으로 *"Miss"*를 꼽을 수 있겠는데, 본 트랙에서 사용된 흐릿한 리버브 보컬과 90년대의 낯익은 블록 스타일 킥과 스네어 박자는 페이드인 기법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무겁고 부담스럽게 세공되었을 것이다.

*"Moan"*과 *"Delusional"*은 분명 Janet Jackson과 Cypress Hill을 향한 명백한 오마주이다. 전자의 경우 Janet의 유명한 명곡 *"Throb"*을 연상케 하는 리듬 구조와 관능적인 숨소리가 트랙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고, 후자는 *"Insane in the Brain"*의 브레이크 샘플을 따와 변형한 드럼 패턴 위에 정교한 멜로디 라인을 얹는다. 트랙 간의 질감 변화 역시 매우 탁월하다. *"Two Thieves"*는 초반에는 TLC 식 R&B 스타일로 곡을 전개하다 후반에 트립 핫(Trip Hop)과 인더스트리얼(Industrial)이 뒤섞인 방식으로 질감을 점점 갈아붙인다. 이 순간에서 필자는 Massive Attack과 Portishead의 음악을 떠올렸었는데, 이는 *<Lifetime>*이 단순 Y2K 감성을 훌륭히 구현해낸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운드를 탐구한 결과물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평하자면 <Lifetime>은 지나치게 심심하다는 것이 그 흄이다. 앨범의 톤이 굉장히 매끈하고 조용한 탓에, 에리카 특유의 정제된 우아함이 어느 순간 ‘안전함’과 ‘무난함’으로 치환되고 만다는 것이다. 특히 에리카의 보컬은 기교 없이 담백하고 속삭이듯 읊조리는 방식이라, 앨범 전체를 단번에 들기엔 다소 단조롭다고 느껴지곤 한다. 트랙 간의 사운드 톤도 유사하고, 사운드는 세밀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나 극적인 연출이 전무한 탓에 한순간에 곡의 개성이 뭉개져버리기도 하니 말이다. 가령 “Twice”나 “Dreams” 같은 트랙은 잘 만든 R&B 트랙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과연 이가 <Lifetime>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곤 한다.

그래도, 이 습습함 역시 에리카의 음악과 <Lifetime>의 고유의 미덕이자 일부분이 아닐까. <Lifetime>에서 그녀는 리스너들이 감정적으로 커다란 반응을 보여주길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조용히 우리의 순간을 빛바랜 노란색으로 채운 뒤에, 훗날 어느 순간에 문득 떠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에리카가 본인의 음악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했던 바가 아니었을까. <Lifetime>은 에리카가 Y2K라는 시대의 감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감정의 밀도를 낮춘 채 청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음반이다. 피할 수 없는, 피하려고 하지도 않은 여러 단점을 속에서 그녀는 2000년대 초반의 미묘한 감정들 —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외로움, 꾸며진 사랑, 정제된 낭만 — 을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기술한 것이다.

EDITOR  
자카



Album	Lifetime
Artist	Erika de Casier
Released	25. 5. 8
Tracklist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Miss</li><li>2.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li><li>3. Seasons</li><li>4. You Got It!</li><li>5. December</li><li>6. Delusional</li><li>7. The Chase</li><li>8. Moan</li><li>9. The Garden</li><li>10. Two Thieves</li><li>11. Lifetime</li></ol>

Fancy That  
PinkPantheress





“노래가 굳이 길어야 하나요?” 논란의 인터뷰에도, 핑크팬서리스(PinkPantheress)는 해당 신념을 꿋꿋이 이어오고 있다. 데뷔 믹스테이프 <to hell with it> 까지만 해도 그저 반짝하고 없어질 양산형 TikTok 아티스트로 여겨졌던 그녀는 – 이제 20년대 팝 컬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Y2K 스타일의 빠른 템포, 위스퍼링, 향수로 가득한 멜랑골리한 DIY 사운드. 이제는 핑크팬서리스의 음악을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다. “Boy’s a liar Pt. 2”의 메가 히트, <Heaven knows>의 성공 후 2년 만에 발매한 <Fancy That>은 이 아이콘의 점진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는 흥미로운 믹스테이프이다. 총 9트랙으로 구성된 이 ‘짤막한’ 앨범은 20분 만에 가볍게 휘발되지만, 전작들에 비해 훨씬 무겁다.

<Fancy That>에는 여유 따윈 없다. 언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다, 어느 새 종착역에 도달해 있다. 내내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간 보기다. 철저히 단출함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매 트랙을 예쁘게 치장하려 애쓴다. 얼핏 <Heaven knows>에서 스케치 수준으로 지나가던 트랙들과 비슷한 듯하지만, 결은 분명히 다르게 조정하는데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홀려넘칠 정도로 타이트한 샘플의 활용과 프로덕션의 질감이다. 드럼과 베이스, 여타 악기들의 사운드 디자인 역시 홀륭한 타격감과 디테일을 보장한다. 그녀답지 않게(!) 사운드가 시종일관 꽉꽉 채워져있는 모습, 이전까지 보여줬던 DIY 감성과는 확실히 다른 인상을 준다.



욕망, 이른바 성에 대한 탐구 역시 <Fancy That>에서 한층 도드라진다. 그녀는 주로 내성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섹스나 쾌락에 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오프너 “Illegal”에서부터 거하게 약에 취해 있다. 정작 핑크팬서리스는 해당 트랙을 대마초 디스 트랙이라 표현했지만… 애당초 트랙의 원래 주제가 남성 매춘이었던 만큼, 핑크팬서리스는 본작에서 개방성을 지향한다. 다른 트랙인 “Tonight”에서는 더욱 노골적이다. ‘You want sex with me?’라는 코러스의 반복과 대담하게 이어 가는 섹스 어필, 다소 위트 있고 차분한 멜로디 라인에서 담담하게 이어가는 유혹은 - 화자의 수줍고 주저하는 마음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상상만 해도 긴장돼서 토했던 것 같아…’ 서투른 당돌함에 풋풋함마저 느껴진다.

올 한 해 발매된 최고의 싱글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Stateside” 역시 Estelle의 “American Boy”에 착안한 – 아메리칸 핫가이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플러팅이다. 베드룸 팝(Bedroom Pop)과 플로어 뮤직 사이의 아찔함을 잘 캐치해낸 탁월한 넘버, 총 두 번 발생하는 드랍 역시 끝내준다. 하지만 <Fancy That>에서 뇌리에 남을 만한 장면은 이게 전부다. 싱글 컷들을 제외한 트랙들은 사정 없이 휘발되며, ‘핑크 팬서리스 표’ 음악이 주던 중독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그녀의 음악 내에선 짧은 길이의 기조가 일종의 룰처럼 고착화되었기에, 아무리 단단한 사운드로 무장해도 이전보다 더 쉽게 희석될 뿐이다.



하지만 필자는 <Fancy That>을 일종의 실험으로 여기고 싶다. 조금 더 풍부한 프로젝트, 볼륨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티스트의 고민이 분명히 포착되며, 태도와 주제 측면에서도 그녀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다. 비록 본작에서는 틱톡 아티스트로서의 허물을 완전히 벗진 못했지만, <to hell with it>, <Heaven knows>,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핑크팬서리스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진화의 폭은 놀랍다. 현 시점에서 메인스트림 아티스트 중 핑크팬서리스를 대체할 이가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해 단위로 발전해나가는 사운드를 지켜보는 일이란 즐겁다. 이제는 앨범 단위로 이 에너지를 유지할 때다.

EDITOR  
SRUKSAN



Album	Fancy That
Artist	PinkPantheress
Released	25. 5. 9
Track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Illegal</li><li>2. Girl Like Me</li><li>3. Tonight</li><li>4. Stars</li><li>5. Intermission</li><li>6. Noises</li><li>7. Nice to Know You</li><li>8. Stateside</li><li>9. Romeo</li></ul>



**GOLLIWOG**

**Billy Woods**



골리워크(Golliwog), 19세기 말 미국의 동화책 작가 Florence Kate Upton에 의해 창작된 봉제인형 캐릭터이다. 석탄을 연상케 하는 칠흑의 피부와 폭탄을 맞은 듯한 부스스한 아프로, 민스트럴 쇼에서 묘사된 전형적인 흑인의 모습. 인종차별은 인형의 몸에 깃든 채 세인들이 그 영의 형태를 인지하지 못할 때 까지, 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되는 사항이 추억의 의복을 걸쳐 입을 때까지 미소 지으며 암약했다. 하지만 죽은 척하는 골리워크의 은신술조차 책상 위 잔뜩 쌓인 서적더미에서 완전히 모습을 숨기진 못했다. 그리고 책상의 주인은 — 얼굴 없는 한 뉴욕 작가. 모자이크 처리된 철학자의 고향은 프로젝트 버전의 도서관과 세계사 박물관. 허나 골리워크는 발견될 지언정 통제되지 않는다. 오감이 차단된 이에게 통제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는 문화로 위장된 민족의 악몽이 아직까지도 문고리를 열어젖히는 현실을 막아낼 수 없다. 그러나 묘사한다. <GOLLIWOG>은 빌리 우즈(billy woods)가 포착하고 겪어낸 세상의 가장 처절하고 공포스러운 단편이다.

물론, 자칫 진명으로 오해할 만한 가명을 사용하는 이 래퍼의 음악을 진정 한 차례라도 주의깊게 접한 이들이라면 빌리가 펜을 잡은 운율가 중 가장 지혜로운 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 도발적인 형용에 일말의 거부감이라도 든다면, '다방면에 무척이나 조예가 깊은'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Wu-Tang Clan 아래 출현하기 시작한 랩의 걸출한 작가 중에서도 그는 많지 않게 Black Thought나 Lupe Fiasco에 비견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제 다소 고리타분해진 감이 있는 앱스트랙 힙합이라는 용어를 제하고도, 현재 Mach-Hommy와 빌리 우즈만큼 독창적인 가사를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래퍼를 찾게 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미있는 점은 두 얼굴 가린 유령의 작사 방식 차이에서 관측된다. 둘 모두 인문학 전반에 기반해 추적하기도 벅찰 정도로 다채로운 레퍼런스를 채용하지만 — Mach가 근래의 연예계 사건이나 유행어를 높을 빈도로 사용할 정도로 트렌디한 작가라면, 빌리는 철저히 역사서와 기억의 파도를 헤치며 하나의 연표를 그려내는 작가다. 그렇다. 좀 더 쉬운 표현을 모색하자면, 빌리 우즈의 펜촉은 다소 과거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탐구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그의 리릭시즘이 일찍이 커리어를 시작한 중견 래퍼들의 눈물 젖은 파운드 케이크 같은 회한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재능의 소유자가 제대로 작정을 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집필하면 〈Aethiopes〉 같이 초월적인 음반이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물며 그는 Kenny Segal과 함께 다소 일상적인 차원의 산책과 여행을 소재로 2023년의 랩 앨범을 제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빌리 우즈는 〈Maps〉의 브루클린 거리를 〈Hiding Places〉의 흉가 수준까지 뒤틀어버리며 가히 무시무시하다 할 만한 이미지를 창조한다. 아니, '소환한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본작의 음형이 빌리 우즈 개인의 과거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와 드라마를 빌드업하는 빌리의 스토리텔링은 쉴롭의 거미줄처럼 청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쉬이 형용하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숨을 조여온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브루클린 출신의 래퍼 MIKE의 리릭시즘을 아직 덜 여문 청춘의 스쳐가는 고뇌 정도로 치부하게 할 만큼 염세적이고, 또 다분히 아프로페시미즘적이다. 일체의 미화가 전무하다. 시대의 주연이 아닌 시대의 관찰자로서 조명받지 못한 채 정돈한 빌리 우즈 저(著)의 사기(史記)는 어떤 관점에서는 Nas보다도 더욱 뉴욕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본질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billy woods

GOLLIWOG

Armand Hammer의 2023년작 <We Buy Diabetic Test Strips>는 사실상 Armand Hammer라는 브랜드 그 자체를 수록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빌리 우즈와 E L U C I D가 그들의 실험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악이 한 장의 LP판 곁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GOLLIWOG>은 빌리 우즈 개인의 <We Buy Diabetic Test Strips>다. Preservation, Kenny Segal, Conductor Williams, Steel Tipped Dove, DJ Haram, Messiah Musik, 그리고 The Alchemist와 El-P까지. 오랜 협업자들이 아티스트의 경이로운 역량에 걸맞는 고품질의 비트를 하나 이상 제공했다. 이는 빌리 우즈 버전의 <The Black Album>이며, Backwoodz Studioz 버전의 <The Documentary>이다. El-P와 Despot의 화학 반응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은 2025년 기준으로 결코 흔하지 않다. 바야흐로 추상 힙합의 올스타 음반이 창조된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의도적으로 스트리밍 사이트 아티스트란에 모든 프로듀서들을 표기했다. 이는 일종의 과시이자 명백한 장치이다. 엠바고를 취하기라도 하듯 앨범 공개 초반에는 피쳐링 아티스트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된 요즘, 본작은 그 관행을 우습게도 비틀어버린다. 덕분에 청자들은 Conductor의 "STAR87"이나 El-P의 "Corintians"처럼 전율적으로 연출된 사운드스케이프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면서도, 출생이 상이한 비트들이 빌리 우즈의 지휘 하에 단일 앨범으로 놓축되어 강대한 응집력을 갖추는 치밀한 설계에 다시금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된다.



We Buy Diabetic Test Strips  
by Armand Hammer  
23. 9. 29

호러코어를 표방하는 앱스트랙 힙합이 아방가르드 재즈의 망토를 두르고, 노이즈 음악과 앰비언트 음악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 <GOLLIWOG>은 다분히 영화적인 요소조차 일부 수용한다. 특히 빌리 우즈의 앨범치곤 훈치 않은 빈도로 삽입되는 보이스 스킷의 표면적 인상은 GZA의 성서가 그러했듯 찬바라 필름이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필름에서 갓 차출해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고 하여 본작이 RZA나 Madlib 같은 장르 거장들의 방법론을 완벽하게 채용하거나 모방하진 않는다. 앨범의 시작을 장식하는 “Jumpscares”는 제목 그대로 점프 스케어를 선사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비디오 게임의 효과음을 샘플링하는 센스를 갖추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빌리 우즈의 다이얼로그들은 역사적 현장에서 발굴된다. 일례로, Steel Tipped Dove의 음산한 “BLK ZMBY”에서 빌리는 ‘좀비’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착취당하는 현대 아프리카를 비유적으로 조명한다. 이때 그는 Yoweri Museveni의 자기변호성 발언을 직접 인용함과 동시에, 그 위 자신의 음성으로 ‘Zombie’를 연창하며 이 추례한 비극적 현장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Corintians”的 아웃트로 스킷에서 영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들려오듯, 본작은 상이한 객체들을 덧씌움으로써 역설을 묘사한다. 이것은 컨셉 앨범 따위가 아니다. 그저 더없이 담백하고 참혹한 사실일 뿐이다.



©2024 BACKWOODZ STUDIOZ. All Rights Reserved.

애프터트랙의 MC들 — 특히 빌리 우즈의 작사에 있어 기성 랩 리릭시즘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두 속성이라면 — 컨텐츠 과잉과 누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빌리 우즈의 가사에서 ‘L’로 시작하는 전치사를 찾기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한 학자답게 일반인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할 이름들을 무척이나 손쉽게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관념을 남기지 않는다. 때문에 그의 가삿말들은 필연적으로 추리를 요하는 거대 미로의 형상으로 정렬된다. 사건이란, 우선적으로 해체되고 작가들의 단어와 TV 전파를 통해 재편성되어 이해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답을 모르는 이는 펜의 주인이 아니기에, 이해는 <GOLLIWOG>의 시청자들에게 요해진다. “Maquiladoras”에서 빌리 우즈는 Frantz Fanon의 ‘자기절단’ 개념을 선제시하며 Kendrick Lamar가 Kunta Kinte의 컨셉을 차용한 것보다도 명료히 메시지를 소묘한다. 하지만 ‘빌리의 일간 십자말풀이’를 잠시 뒷전으로 두고도, 본작이 드라마로서 가지는 위력 역시 무척이나 상당하다. 아마도 빌리 우즈의 모든 곡을 통틀어서도 가장 개인적일 호러코어 “Waterproof Mascara”的 스토리텔링은 여인의 흐느낌을 샘플링한 Preservation의 비트만큼이나 노골적인데, 한 번도 그의 부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Careful what you wish for, might just get that shit’이라는 한 줄이 남기는 후폭풍은 상당하다. 그 모든 일련 과정에서 빌리 우즈는 골든 에라에서 유래한 정통적인 랩 플로우를 추종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어떠한 면에서 그의 랩은 스포큰 워드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Moor Mother와 협작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그가 말하는 시인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술적인 MC로서도 여전히 MF DOOM의 공식에 가장 근접한 장본인이다.

〈GOLLIWOG〉이라는 추상화는 피사체의 존재를 정확히 명시하지만, 채색의 디테일이 너무 상당한 나머지 그 형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순 없다. 이는 어떤 면에서 흔히 쓰이는 유화보다도 템페라에 더 유사하다. 혹은 우리가 재즈 버전의 1인 Cannibal Ox를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영향의 기원이 다채로운 만큼이나 많은 그림자들이 본작을 스쳐가지만, 지난 몇 년간 한결 같이 자기주장이 다 강했던 빌리 우즈의 음반치고 〈GOLLIWOG〉이 유독 그 전신을 다 파악하기에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품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카리스마만큼은 〈Aethiopes〉 아래로 가장 강렬하다. "A Doll Fulla Pins"의 나머지 절반은 단연 앨범 최고의 순간이라 찬사받을 만한데, 해당 벌스가 골리워 인형과 부두 인형의 개념을 교차시켜 앨범 전체의 주제의식을 얼마나 간단하게 축약하는지 목도하라. 진입장벽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이 불만이라면, 당신은 아직 "Dislocated"를 온전히 청취하지 않았다. 맙소사, 지금의 빌리 우즈는 거의 John Carpenter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틀어놓은 채 GZA의 사무라이 검을 휘두르는 Stephen King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연작의 향연 끝에 나온 앨범이 이토록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품위 있다면, 이제 빌리 우즈를 추상 힙합이라는 서브 장르에서 꺼내올려 힙합의 최고 중 하나로 추대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Ka가 역사의 뒤안길로 걸어간 이상, clipping.이 대체 불가한 것 이상으로 그는 진정 독보적인 존재다. 아, 그래. 오리지널을 곁들여보자. 호러와 노스탤지어의 공통분모는? 아련함.

EDITOR  
온암



Album	GOLLIWOG
Artist	Billy Woods
Released	25. 5. 9
Tracklist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Jumpscare</li><li>2. STAR87</li><li>3. Misery</li><li>4. BLK XMAS</li><li>5. Waterproof Mascara</li><li>6. Counterclockwise</li><li>7. Corinthians</li><li>8. Pitchforks &amp; Halos</li><li>9. All These Worlds Are Yours</li><li>10. Maquiladoras</li><li>11. A Doll Fulla Pins</li><li>12. Golgotha</li><li>13. Cold Sweat</li><li>14. BLK ZMBY</li><li>15. Make No Mistakes</li><li>16. Born Alone</li><li>17. Lead Paint Test</li><li>18. Dislocated</li></ol>

Sincerely,  
*Kali Uchis*



## Dear: 칼리 우치스(Kali Uchis)

깃을 훤히 펼치며 매혹적인 아우라를 뿐내는 선홍의 공작처럼  
늘 신비로운 우아함으로 저희를 반기던 우치스 씨께 가장 먼저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덕분에 팬으로서 저는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작열은 꼭 마법의  
샘물처럼 마를 일이 없는 것인지, 해마다 이렇게나 새로운  
매력으로 찾아오시다니요. 그것도 깊은 핏줄로부터 대대로  
길어올린 그을린 햇빛 같은 관능의 정열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품은 달빛처럼 몽롱한 듯 순결한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으신 채인걸요. 그윽한 눈빛으로 홍학색 배게 뭉치에 몸을  
기댄 당신의 풍채로 보건대, 이번에는 그 우아함이 로코코  
시대의 야릇한 빈티지와 만나 고전 회화에 그려진 미녀를  
보는 듯하더군요. 오십 분 정도되는 노랫말의 여정은 마치 그  
회화 속으로 들어가 천천히 미녀의 품에 안긴 것만 같았고요.  
역시나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기다림 사이에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렇게라도 어머니께 애도의 뜻을 전해봅니다. 분명 천사들이  
줄곧 곁을 맴들며 두 분을 먼저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보고 계실 차례가 온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어머니께 헌사를 드리기 위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노래들을 만드셨죠. 그 뜻 또한 분명 전해졌을 겁니다.  
마음의 가장 깊고도 연약한 곳에 있는 사랑을 노래하시면서,  
엄숙함과 가녀림 사이를 오가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곧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여인이자 강한 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상심과 절망이  
아닌 변화와 희망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실제로도 희망이란 말조차 부족할 만큼 벅찬 행복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송고한 축복이죠. “설탕! 혹은 꿀!, 그 만큼이나 달콤한 사랑!”을 향한 예찬은 어느 때보다 열렬하여, 곁을 지키고 계시는 배우자 분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군요. “All I Can Say”에서 당신의 팔세토를 듣고 있자니, 따스한 햇빛 아래 서로에게 간질거리는 교태를 부리며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벨루가 부부 한 쌍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외로운 밤 “실크 란제리”를 입고 계신 당신은 자신의 결점마저 기꺼이 품으며, 함께 나아갈 진정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렇게 찾아낸 동반자와 평생을 약속함은 물론, 어느덧 새롭게 태어난 조그만한 동반자까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멋진 아내이자 어머니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인 거겠죠. 진심으로 행운을 빕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물하시는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향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이나 진심일 수 있으며, 무한한 헌신을 약속할 수 있는 남자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감미롭고 세련된 음악으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섹시하고 부드러운 남자일지는 일찍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상대의 가치를 알아주고, 부족함을 아울러주고, 곁에서 책임을 다해 버팀목이 돼주는 진정 멋진 남자셨군요. 그러나 한편, 그녀에게는 아직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은 물론, 여전히 스스로를 향한 감정적인 혼란과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일련의 발라드 속에 때로는 독기 — 물론 이 역시 분노가 아닌 결의로서의 의미로 보입니다만 — 가 서려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삶의 다른 챕터를 맞이한다는 사실과 가족을 향한 본능적인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그녀가 여성이기 이전에 미래의 모든 것이 처음인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라면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렇기에 앞으로 드릴 말씀은 지극히 제 어리석은 오지랖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부디 지금 그녀의 고민과 불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가 한없이 완벽해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그녀에게는 어떤 모습의 당신이든 사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일 겁니다.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당신에게 강력한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반면 당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간 선보였던 자신의 다채롭고 우아한 매력 대신에 그 이면의 미묘한 감정과 약함을 거의 일관적이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신뢰로 하여금 정직하고 충실할 준비가 됐다는 뜻일 겁니다. 그 진심을 헤아려 주시며, 그녀에게 약속하는 것이 불완전함마저 사랑할 줄 아는 '이해'와 '성장'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당신 역시 작품으로서 가족이 된 동반자들을 향한 진심을 기록에 남기고, 저희 또한 그것을 들으며 또 다른 감동을 얻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아직 어리기만 할 뿐인 제가 둘을 보면서 부부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고귀함을 배웁니다. 천사들이 당신들에게 결코 한눈을 팔 일이 없도록 제 모든 격려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 Dear. 이 순간 세상을 처음 마주한 천사

이 낯선 세상의 어딘가에 태어난 네가 참으로 반갑구나.  
너의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목소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자란다면, 처음 녹음된 너의 목소리도  
들을 날이 오겠지. 기특하던걸, 그렇게나 당차게 엄마를  
불러주다니. 그래, 너의 어머니께서는 오로지 너만을 위한  
특별한 노래 "I LYSMH"를 이 세상에 남겼어. 수수께끼  
같기만 하던 제목의 의미는 다름 아닌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진심 하나였지.  
"햇빛과 비"가 마음의 안팎으로 요동치는 날씨만큼,  
변괴무쌍한 일들의 연속을 겪어 온 어머니께 너의 존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라는구나.  
그것도 첫 마디에서 말이야.

내게도 항상 우아하고 대담하며, 성숙한 어른으로만  
보였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니?  
그녀가 비로소 어른이 된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결정적인 단추가 바로 너라는 거야. 그녀의  
삶은 물론, 어쩌면 그녀의 예술까지도 너로 인해 완성된  
것 같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너와 너의 아버지가 함께하게 되겠지.  
그것이 곧 가족의 의미가 아니겠니. 두 남녀의 영원한,  
그리고 한 가족의 새로운 매듭이 돼준 아가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언젠가 이 선물을 직접 귀로 마주하게  
될 날이 올 때까지 아무런 탈 없이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라.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소년이 된 너를 볼 수 있기를.



Sincerely,

감상주의 (KMSNJUI)

June 9, 2025





EDITOR  
감상주의  
(KMSNJUI)



---

Album      **Sincerely**

---

Artist      **Kali Uchis**

---

Released    **25. 5. 9**

---

Tracklist

- 1. Heaven Is a Home...
- 2. Sugar! Honey! Love!
- 3. Lose My Cool,
- 4. It's Just Us
- 5. For: You
- 6. Silk Lingerie,
- 7. Territorial
- 8. Fall Apart,
- 9. All I Can Say
- 10. Daggers!
- 11. Angels All Around Me...
- 12. Breeze!
- 13. Sunshine & Rain...
- 14. ILYSMIH

---



# 13 Months of Sunshine

Aminé



<13 Months of Sunshine>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미네(Aminé)라는 아티스트가 어떠한 아티스트인지를 생각해 보자. 유쾌하고 창의적인 뮤직비디오, 위트 있는 가사, 아프리칸 디 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가볍고도 개성 있게 풀어내던 그는 메이저 힙합씬에서 나름의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그의 창작력이 정점을 찍은 2020년의 <Limbo>에서 그는 음악적으로도 서사적으로 깊이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의 고난, 불안정한 커리어에 대한 고민, 그 사이에서 두각을 보이는 재치 있는 가사들과 카리스마가 절묘한 삼박자를 이루며 자신이 얼마나 개성 있는 인물인지를 증명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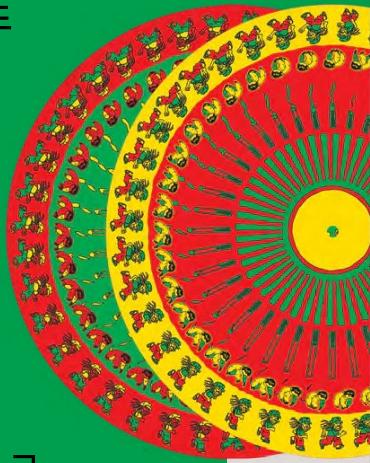
그러나 어째서인지, <Limbo> 이후 아미네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에서 조금씩 멀어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TWOPOINTFIVE>은 믹스테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벼운 익스페리멘탈 사운드의 덩어리와도 같았고, 2023년 발표된 KAYTRANADA와의 합작 앨범 <KAYTRAMINÉ>는 댄서블한 무드에 집중한 또 다른 가벼운 결과물이었다. 어쩌면, 아미네라는 하나의 아티스트와 그 정체성은 <KAYTRAMINÉ>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노래하기보단, 그저 한 파티의 일부로 기능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13 Months of Sunshine>은 그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곁보기엔 솔로 앨범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KAYTRAMINÉ> 에라의 느긋하고 무드 중심의 접근은 여전히 앨범을 지배하는 듯 보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미네 특유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표면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오프너 "New Flower!"부터 시작해, 아미네는 사랑과 상실, 나아가 자기 성찰의 조각들을 던져놓는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한 곡 한 곡을 관통하는 중심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곧바로 가벼운 무드 위주의 트랙들로 덮여버린다.

"History"나 "Be Easier on Yourself" 같은 트랙은 그나마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지만, 이내 "Familiar"나 "Rebuke" 같은 텅 빈 트랙들이 등장해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본작의 문제점이 오직 그 러한 트랙 간의 밸런스가 붕괴되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다. <13 Months of Sunshine>은 애초에 아미네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의 아미네를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내적 확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아프리카 아주민 2세로서의 정체성, 흑인 청년으로서의 위치, 또 음악인으로서의 불안정함 — 그 모든 주제들이 이전에는 구체적인 서사와 이미지로 녹아들었지만, 이번에는 사운드의 일부 요소로서만 배치된다. 감정은 존재하는데, 정체성이 흐릿해진 탓에 이가 크게 퇴색되어버린 것이다.



13 Months of Sun  
ETHIOPIAN TOURISM COMMISSION ADDIS

<13 Months of Sunshine>에서 특별히 좋지 않은 곡이나 끔찍한 순간을 찾기는 어렵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감정적인 연출이나 분위기 좋은 트랙들의 밸런스가 철저히 산재되어 배치된 탓에 그 어떠한 트랙들도 기억에 남지 못한다는 것이, 본작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본작을 전부 청취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은 몇 줄의 쓸쓸한 가사, 어여쁜 사운드 이펙트, 그리고 또 한 번 공백으로 남은 아미네라는 한 인물일 뿐이다. 본작은 마치 웃고 있으나 내내 딴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을 음악으로 승화시켜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미네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Album	<b>13 Months of Sunshine</b>
Artist	<b>Aminé</b>
Released	<b>25. 5. 16</b>
Tracklis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ew Flower! (feat. Leon Thomas)</li> <li>2. Feels So Good</li> <li>3. Sage Time</li> <li>4. I Think It's You</li> <li>5. Cool About It (feat. Lido)</li> <li>6. History (feat. Waxahatchee)</li> <li>7. Vacay</li> <li>8. Familiar</li> <li>9. Doing The Best I Can</li> <li>10. Temptations</li> <li>11. Be Easier On Yourself</li> <li>12. Raspberry Kisses</li> <li>13. 13MOS</li> <li>14. Changer (feat. chlotheongod)</li> <li>15. Arc de Triomphe</li> <li>16. Images (feat. 454 &amp; Toro y Moi)</li> </ol>



↖

1.     <The Unseen> ↖

by Quasimoto ↖

↖

2.     <Ye> ↖

by Kanye West





<The Unseen> by Quasim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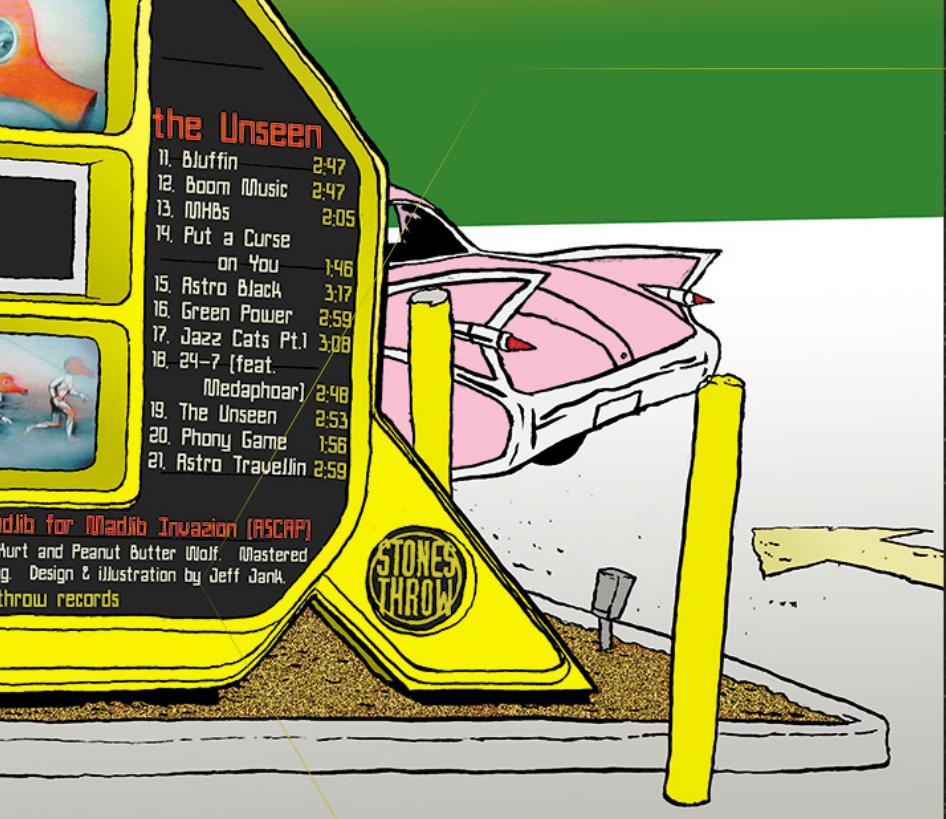


홍등 빛과 소음이 만연하여 어지럽고 음울한 빛으로 물든 도시.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토대로 점점 더 어둡게 팽창하는 공간. 그곳에서 소문은 무성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한 존재가 있다. 실존 여부조차 분분한, 이제는 도시 전설처럼 입에 오르는 이름 로드 콰즈(Lord Quas). 그러나 그는 분명 존재한다. 매들립(Madlib)이라는 이름의 얼터이고로 말이다. 습하고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실, 먼지 쌓인 마이크와 낡은 장비 앞에 앉아있는 매들립, 아니, 로드 콰즈는 이 도시의 가장 낯고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진 여러 편린들을 조용히 그려모은다. 그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타인인지, 혹은 그 자신인지. 그는 스스로를 “Bad Character”라 칭하며, 기괴하고 냉소적인 언어로 이 도시에 얹눌린 지저분한 이면을 토해낸다. 모두가 애써 외면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서 느끼고 있는 것. <The Unseen>은 바로 그 그림자들의 기록이다. 우리가 외면한 목소리, 그러나 결코 낯설지 않은 고백.

로드 콰즈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 형태, 입체적인 구조 뒤에는 바로 그를 만들어낸 실체 매들립이 있다. 콰즈는 허공에서 태어난 환상이 아니라, 매들립의 머릿속에서 태어나 그의 손끝으로 구축된 자아다. 그는 단순한 분신을 넘어서, 세상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로드 콰즈와 매들립은 콰지모토(Quasimoto)라는 이름으로 인격이 함께 엮여있는 것이다. 매들립이 창조한 음률은 로드 콰즈가 머물고 있는 도시를 표현한다. 이는 전통적인 힙합의 틀을 흉내내는 대신, 그 틀을 망가뜨리고 재즈, 소울, 사이키델릭 등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콜라주한 것이다. 이는 철저히 아날로그적이며, 프로덕션은 단순히 랩을 밟치는 구조물이 아니라 얼터 에고의 심리를 구축하는 매개다. 예상과 어긋나는 전개. 이 모든 혼란은 곧 앨범이 다루는 사운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 <Fantastic Planet>의 OST와 라디오 잡음을 샘플링하여 노이지하게 완성된 "Come on Feet" 이후 재생되는 "Bluffin"은 아름다운 재즈 선율을 보여준다. 이 트랙 전환에서 우리는 앨범 사운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래도 가장 눈여겨 볼 트랙은 "24-7"과 "Unseen"이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어가는 듯한 이 두 트랙을 포함, 전반적인 작법에는 당연하게도 편안함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 독창적인 기발함은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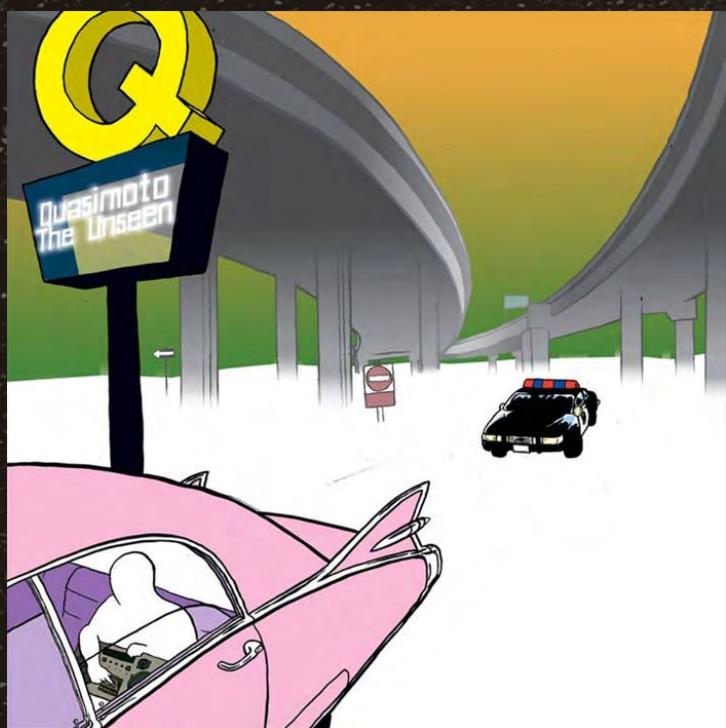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흐름 위 로드 콰즈의 랩은 더 더욱 예측 불가하다. 인위적으로 피치를 조절하여 이질적으로 표현한 보이스는 물론,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벌스들은 서사가 담겨있기보다는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 이리저리 튀고 제멋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각 트랙마다 뚜렷한 주제의식은 담겨있다는 것이다. "Bad Character"에선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동시에 모순적인 도덕적 규범을 풍자한다. 또한 이 트랙에서 'Pitchfork'와 'rich folk'를 사용한 워드 플레이의 작사 센스를 보여주기도 한다. 흑인을 하위 계층이라고 표현하며 불합리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말하는 "Low Class Conspiracy". 돈과 대마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초록색으로 표현하며 이 힘은 결국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Green Power" 등 이 모든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만 외면되고 있는, 그러나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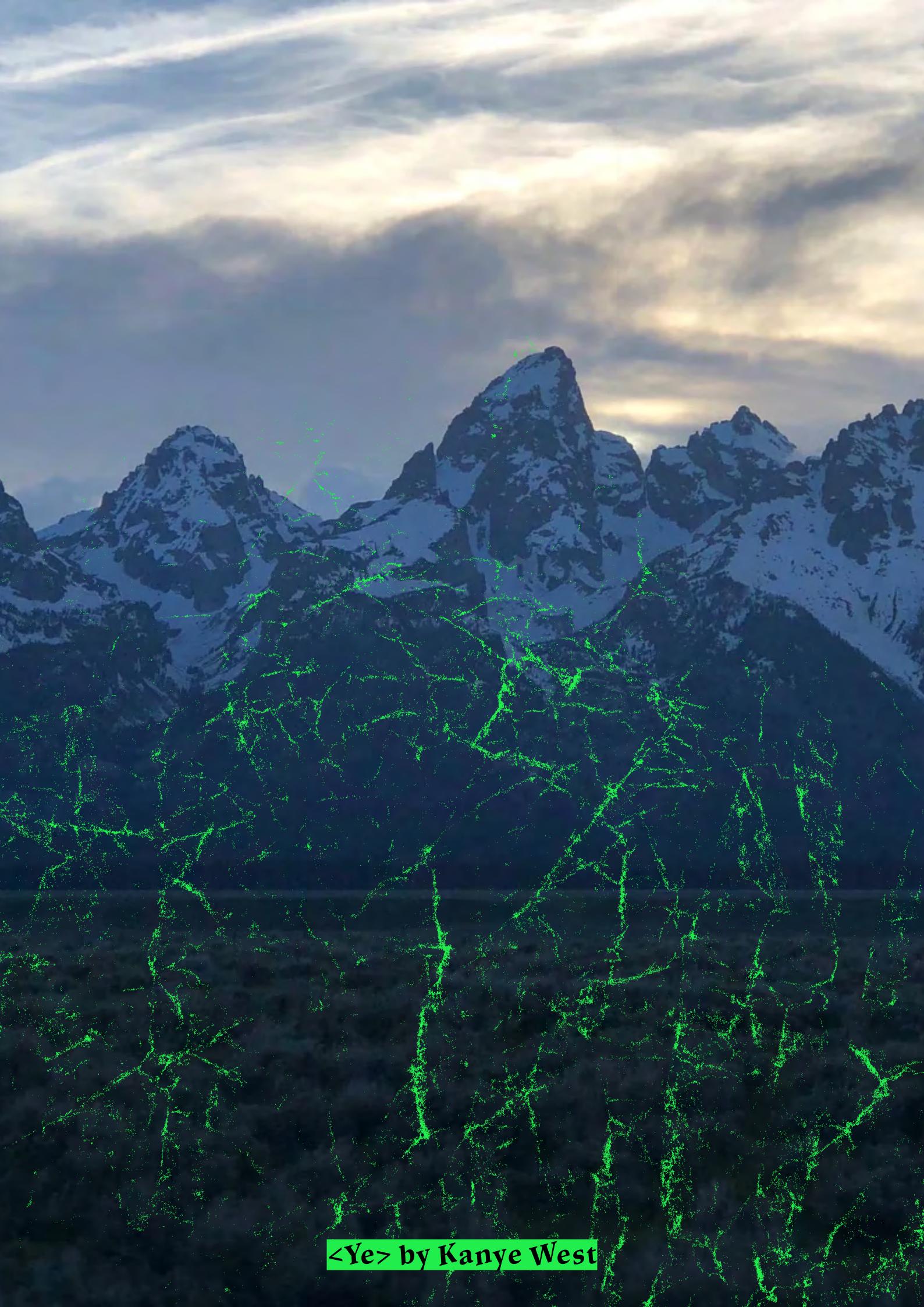


<The Unseen>은 매들립과 그가 만들어낸 왜곡된 자아 로드  
콰즈 즉 콰지모토가 바라본 뒤틀린 현실의 기록이자 자화상이다.  
앨범이 선사하는 거칠고 기괴한 면모, 때로는 불편한 감정 속에  
서,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듣는 이에게  
재미를 주면서도 끝 맛에 남는 묘한 씹쓸함은 결국 우리 내면 어  
딘가 자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끄집어 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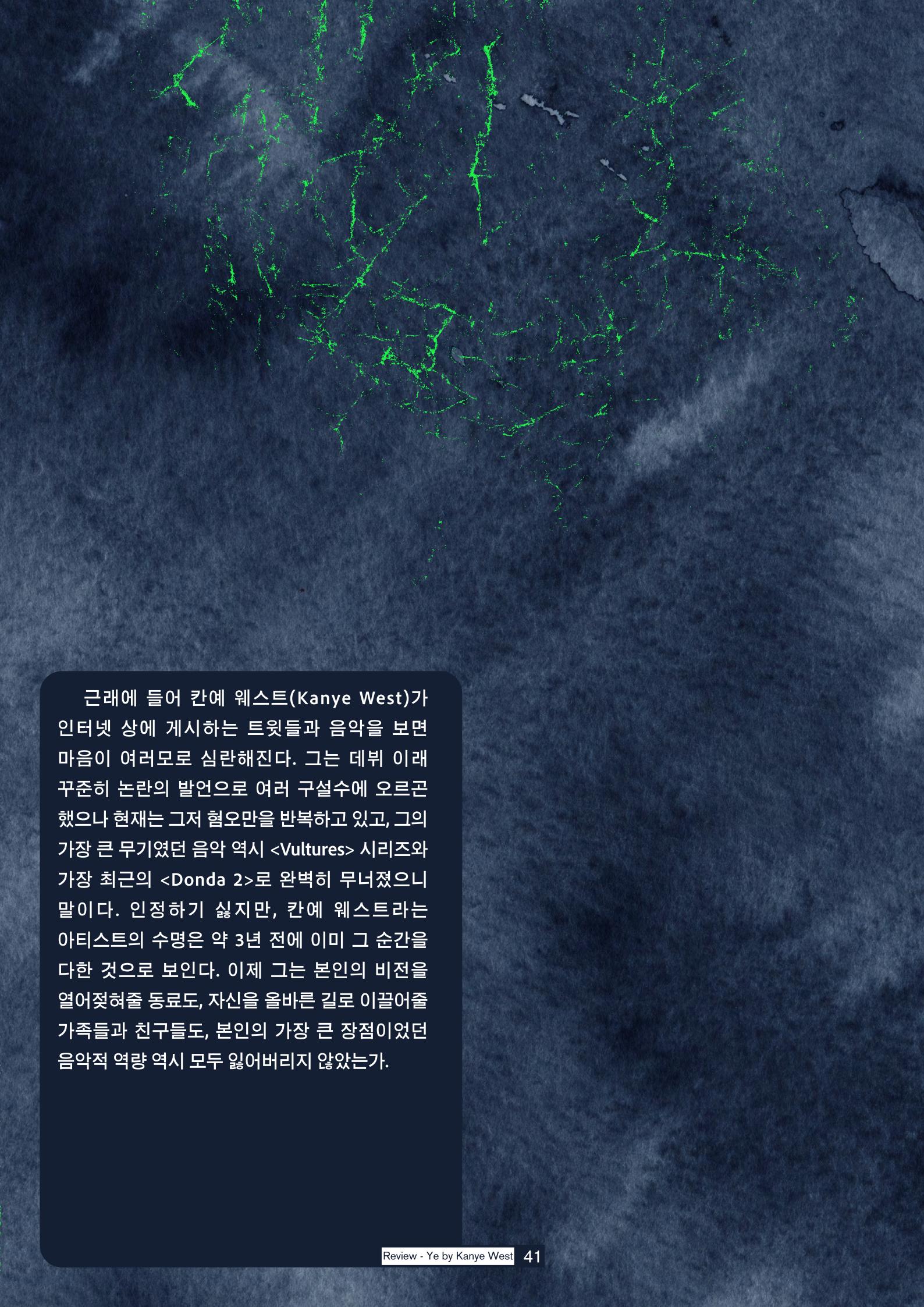
EDITOR  
ryuzim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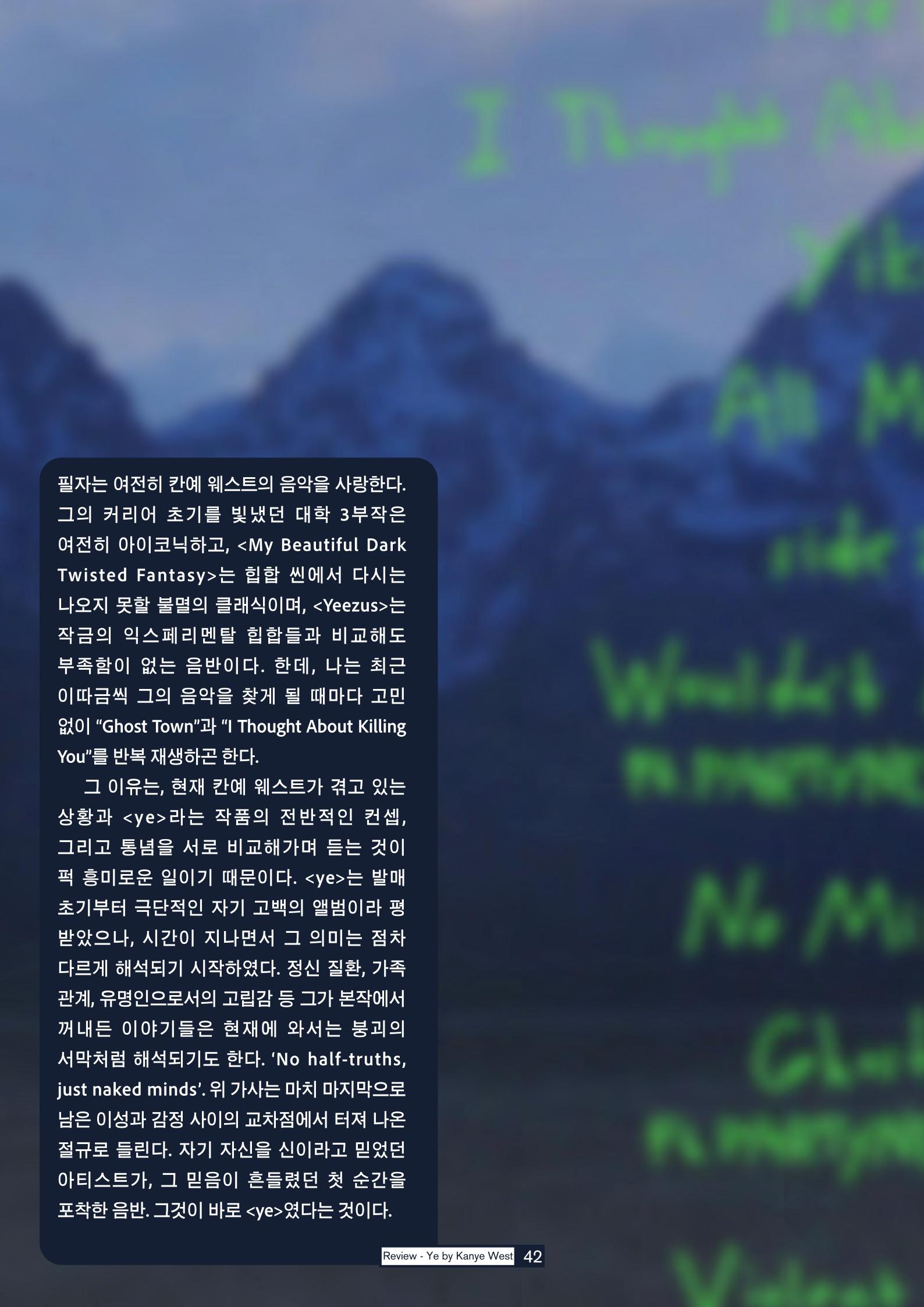
Album	The Unseen																												
Artist	Quasimoto																												
Released	2000. 6. 13																												
Tracklist	<table><tr><td>1. Welcome To Violence</td><td>15. Astro Black</td></tr><tr><td>2. Bad Character</td><td>16. Green Power</td></tr><tr><td>3. Microphone Mathematics</td><td>17. Jazz Cats Pt.1</td></tr><tr><td>4. Basic Instinct</td><td>18. 24-7</td></tr><tr><td>5. Goodmorning Sunshine</td><td>19. The Unseen</td></tr><tr><td>6. Discipline 99 Pt.0</td><td>20. Phony Game</td></tr><tr><td>7. Low Class Conspiracy</td><td>21. Astro Travellin</td></tr><tr><td>8. Return Of The Loop Digga</td><td>22. Blitz</td></tr><tr><td>9. Real Eyes</td><td>23. Axe Puzzles</td></tr><tr><td>10. Come On Feet</td><td>24. Discipline 99 Pt.1</td></tr><tr><td>11. Bluffin</td><td></td></tr><tr><td>12. Boom Music</td><td></td></tr><tr><td>13. MHB's</td><td></td></tr><tr><td>14. Put A Curse On You</td><td></td></tr></table>	1. Welcome To Violence	15. Astro Black	2. Bad Character	16. Green Power	3. Microphone Mathematics	17. Jazz Cats Pt.1	4. Basic Instinct	18. 24-7	5. Goodmorning Sunshine	19. The Unseen	6. Discipline 99 Pt.0	20. Phony Game	7. Low Class Conspiracy	21. Astro Travellin	8. Return Of The Loop Digga	22. Blitz	9. Real Eyes	23. Axe Puzzles	10. Come On Feet	24. Discipline 99 Pt.1	11. Bluffin		12. Boom Music		13. MHB's		14. Put A Curse On You	
1. Welcome To Violence	15. Astro Black																												
2. Bad Character	16. Green Power																												
3. Microphone Mathematics	17. Jazz Cats Pt.1																												
4. Basic Instinct	18. 24-7																												
5. Goodmorning Sunshine	19. The Unseen																												
6. Discipline 99 Pt.0	20. Phony Game																												
7. Low Class Conspiracy	21. Astro Travellin																												
8. Return Of The Loop Digga	22. Blitz																												
9. Real Eyes	23. Axe Puzzles																												
10. Come On Feet	24. Discipline 99 Pt.1																												
11. Bluffin																													
12. Boom Music																													
13. MHB's																													
14. Put A Curse On You																													



**<Ye> by Kanye 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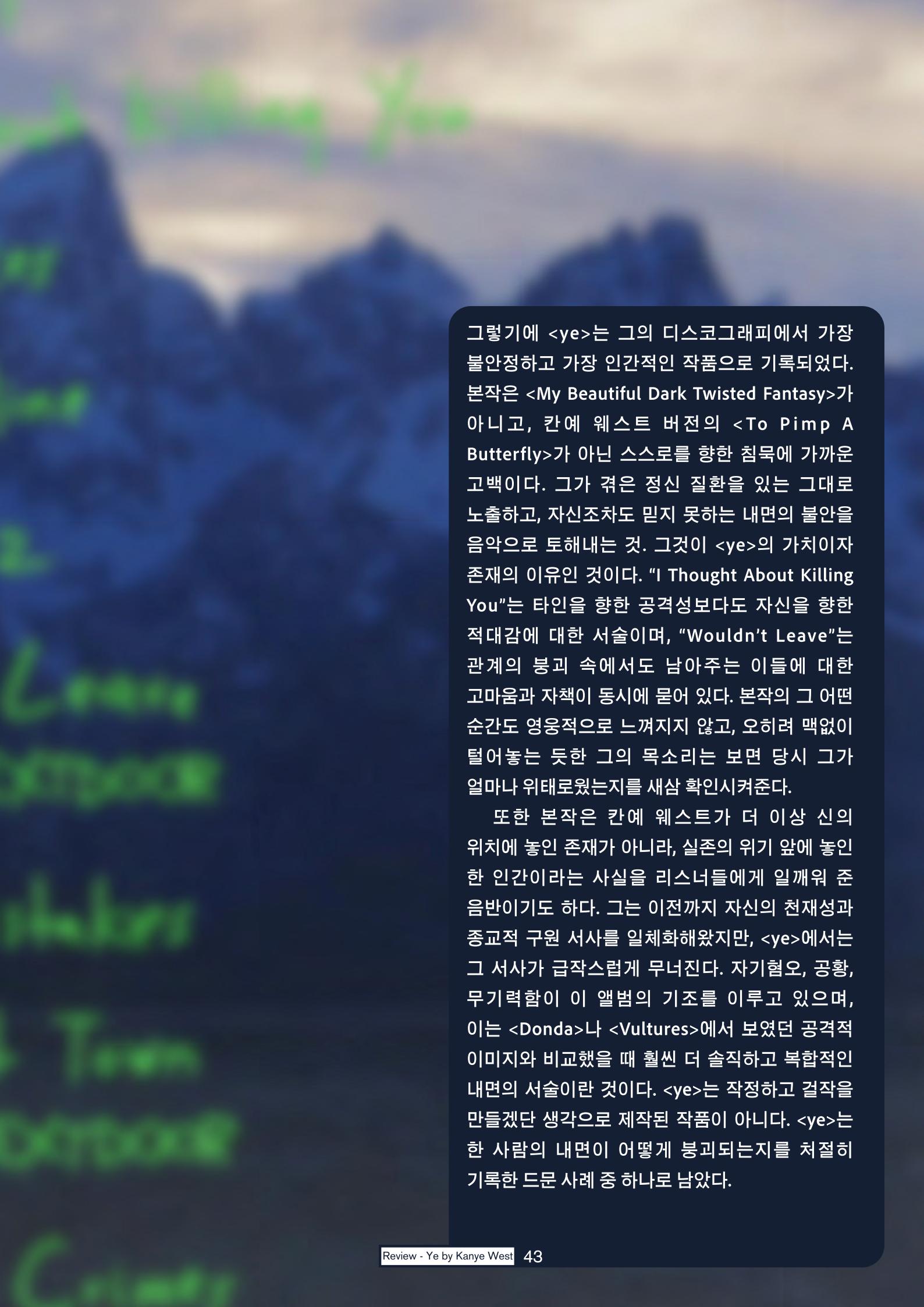


근래에 들어 칸예 웨스트(Kanye West)가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트윗들과 음악을 보면 마음이 여러모로 심란해진다. 그는 데뷔 이래 꾸준히 논란의 발언으로 여러 구설수에 오르곤 했으나 현재는 그저 혐오만을 반복하고 있고,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음악 역시 <Vultures> 시리즈와 가장 최근의 <Donda 2>로 완벽히 무너졌으니 말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칸예 웨스트라는 아티스트의 수명은 약 3년 전에 이미 그 순간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는 본인의 비전을 열어젖혀줄 동료도,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가족들과 친구들도,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음악적 역량 역시 모두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필자는 여전히 칸예 웨스트의 음악을 사랑한다. 그의 커리어 초기를 빛냈던 대학 3부작은 여전히 아이코닉하고,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는 힙합 씬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불멸의 클래식이며, *<Yeezus>*는 작금의 익스페리멘탈 힙합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음반이다. 한데, 나는 최근 이따금씩 그의 음악을 찾게 될 때마다 고민 없이 "Ghost Town"과 "I Thought About Killing You"를 반복 재생하곤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칸예 웨스트가 겪고 있는 상황과 *<ye>*라는 작품의 전반적인 컨셉, 그리고 통념을 서로 비교해가며 듣는 것이 퍽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ye>*는 발매 초기부터 극단적인 자기 고백의 앨범이라 평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점차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정신 질환, 가족 관계, 유명인으로서의 고립감 등 그가 본작에서 꺼내든 이야기들은 현재에 와서는 붕괴의 서막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No half-truths, just naked minds'. 위 가사는 마치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과 감정 사이의 교차점에서 터져 나온 절규로 들린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믿었던 아티스트가, 그 믿음이 흔들렸던 첫 순간을 포착한 음반. 그것이 바로 *<ye>*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ye>*는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인간적인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본작은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가 아니고, 칸예 웨스트 버전의 *<To Pimp A Butterfly>*가 아닌 스스로를 향한 침묵에 가까운 고백이다. 그가 겪은 정신 질환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내면의 불안을 음악으로 토해내는 것. 그것이 *<ye>*의 가치이자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I Thought About Killing You”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보다도 자신을 향한 적대감에 대한 서술이며, “Wouldn’t Leave”는 관계의 붕괴 속에서도 남아주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책이 동시에 묻어 있다. 본작의 그 어떤 순간도 영웅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맥없이 털어놓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보면 당시 그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또한 본작은 칸예 웨스트가 더 이상 신의 위치에 놓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의 위기 앞에 놓인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리스너들에게 일깨워 준 음반이기도 하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천재성과 종교적 구원 서사를 일체화해왔지만, *<ye>*에서는 그 서사가 급작스럽게 무너진다. 자기혐오, 공황, 무기력함이 이 앨범의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Donda>*나 *<Vultures>*에서 보였던 공격적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솔직하고 복합적인 내면의 서술이란 것이다. *<ye>*는 작정하고 걸작을 만들겠단 생각으로 제작된 작품이 아니다. *<ye>*는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처절히 기록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남았다.

앞선 문단에서 계속해서 <ye>의 음악 외적인 요소만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ye>의 음악은 어떨까. 음악적으로 보자면 <ye>는 칸예 특유의 장르 혼합이나 사운드의 야심찬 실험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칸예 웨스트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Ghost Town”의 Kid Cudi와 070 Shake의 보컬은 곡의 주제를 대변하는 희망과 체념의 양가성을 아름답게 구현한다. ‘I feel kinda free’라는 구절이 반복될 때마다, 듣는 이는 그것이 진짜 자유의 선언인지, 아니면 자포자기의 독백인지 훈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호함이야말로 <ye>가 갖는 가치이자 정서인 것이다. <ye>는 감정의 단면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드러내고, 흘려보내며, 듣는 이에게 해석을 맡긴다.



그렇기에 <ye>는 불완전하면서도 강렬하다. 그의 이후 앨범들과는 달리 본작 안의 목소리는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간직하고 있고, 그 고뇌가 리듬과 가사 속에서 맴돌며 듣는 이에게 어떤 감정의 파편들을 남기니 말이다. 그 감정은 때로 불쾌하고, 때로 감동적이며,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필자에게 있어 <ye>는 여전히 좋은 작품이다. 본작 속에는 아직 아티스트로서의 칸예 웨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무너짐조차 음악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 그것이 바로 <ye>였다.

EDITOR  
자카



Album	Ye
Artist	Kanye West
Released	18. 6. 1
Tracklist	<ol style="list-style-type: none"><li>I Thought About Killing You</li><li>Yikes</li><li>All Mine</li><li>Wouldn't Leave</li><li>No Mistakes</li><li>Ghost Town</li><li>Violent Crimes</li></ol>



# FEATURE



PHOTOGRAPH BY  
JONATHAN HARRIS

C



제 4회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Live at Revolution Hall  
Adrienne Lenker

Crying over Pro  
edIT



The Rising Tied (Deluxe version)  
Fort Minor



Music for Yohji Yamamoto  
Ryuichi Sakamoto



ブギーポップは笑わない Boogiep...  
Kensuke Ushio

L.D.K. Lounge Designers Killer  
capsule

hello, i love you & blue lightning  
Adrienne Lenker

00:51

02:12



"KHL 매거진에 합류하고 나면, 매거진과 각종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된다. 그리고 그 채널엔 '자유 게시판'이 있다. 사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 곳에선 종종 음악적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사람들의 이를 악문 토론을 볼 때마다 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이 사람들에게 서로의 음악을 추천해서 억지로 듣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그렇게 이번 매거진 글 소재라며 말을 꺼내 사회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던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에디터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은 걸 보니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4회차도 레스고해보려 한다.



---

Album      Live at Revolution Hall

Artist      Adrienne Lenker

---

젠장, 또 40트랙이 넘는 앨범이야. Tigerbeat6의 악동이 (w/HOM #21 랜덤리뷰 참고) 떠오르고 있어…라는 인상으로 앨범을 틀어보니 막상 마주한건 참으로 잔잔하고 따스한 목소리였다. 이후 아드리안 렌커에 대해 찾아보니 밴드 빅 시프(Big Thief)와 솔로 활동을 오가며, 이미 포크씬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앨범은 제목 그대로 작년에 다녀온 투어 공연의 현장을 꽉 담아낸 라이브 앨범이라 한다. 이 말대로 약간은 깔끔하지 않은 음질과 곡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관객들의 환호성은 라이브 앨범만의 현장감을 나타내며, 중간중간 나오는 짧은 인터루드는 곡을 끝내고 진행되는 멘트 타임 같았다. 그러니까 이 앨범은 포크라고는 김사월, 김뜻돌 말고는 잘못인 나를 한 포크 월드스타의 2시간짜리 공연 장소로 순간이동시킨 앨범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계속 잔잔하게 흘러가는건 내 취향의 문제상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을 법한데, 렌커의 따스하고 흡입력 있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앨범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오늘 또 한 명의 명장을 알아간다.



---

Album      Crying over Pros for No Reason

Artist      editT

---

앨범 커버가 무서웠다. 그리고 그 무섭게 보이는 앨범을 내가 걸렸다. 랜덤리뷰 2회차에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르게 한 적이 있는데, 업보를 청산할 때가 오고야 만 것인가 싶었다. 그럼에도 나는 쫄지 않는다. 틀었다. 비트가 흘러나왔다. 글리치도 함께 나오는지라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올해 나온, 그것도 사운드클라우드나 밴드캠프 어딘가에 있을 법한 감성이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2004년이라고? 뭐야, 이거… 그 말인 즉슨 글리치 흡이 본격적인 유행을 얻기도 전에 나온 스타일이란 얘긴데… 이게 정녕 가능하단 말인가? 귀가 두려움 대신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된 타이밍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괜한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게 진짜 힙한 사운드라 할 수 있지.



EDITOR  
ryuzimoto



EDITOR  
자카

Album	The Rising Tied (Deluxe version)
Artist	Fort Minor

포트 마이너(Fort Minor),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처음 접하게 된 아티스트인데, 커버 아트를 보자마자 '약간 Linkin Park 깔인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정보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Linkin Park의 보컬, 기타리스트 Mike Shinoda의 힙합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꽤나 놀랐었다. 개인적으로 초기 Linkin Park의 음악을 무진장 좋아해서, 밴드의 멤버가 따로 제작한 힙합 프로젝트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품고 재생 버튼을 눌렀었다. 한데, 아무래도 여타 멤버들의 도움 없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여서 그런지, Linkin Park의 음악보다 더욱 촌스럽고 지루하다는 감상을 받았었다. 그래도 여전히 Black Thought, Common을 비롯한 베테랑 래퍼들의 피쳐링은 확실히 좋았다. 그런데 솔직히 그러한 것들 말고 본작에서 내 취향인 지점이 있나? 글쎄다..〈Meteora〉와 〈The Hybrid Theory〉라는 너무 명확한 대체제가 존재해서일지도 모르지만, 굳이 다시 찾아듣지는 않을 듯하다.



EDITOR  
blvckmvter



EDITOR  
SONGCHICO

Album              Music for Yohji Yamamoto Collection  
                        1995

Artist              Ryuichi Sakamoto

엄마 난 큰일 났어요. 평소에 듣는 클래식이라곤 블핑의 셋다운이나 스타필드 화장실에서 나오는 음악이 전분데 류이치 사카모토 아저씨의 앨범이 걸렸어요. 그래도 안들을 순 없지, 내가 이 모임의 주최자인데...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에도 나오지 않는 이 앨범을 유튜브로 찾아 눈을 감고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이게 철판을 두들기는 소린지 건반 소리인지 헷갈렸는데 뒤로 갈 수록 나름 친절한 피아노 연주가 나와서 반가웠어요. 다 듣고 나선 요지 야마모토의 컬렉션 영상을 찾아봤어요. 왜냐면 요지 야마모토의 컬렉션을 위해 제작한 앨범이니깐. 역시 그 시절의 요지 야마모토는 정말 멋지더군요.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에게도, 이 앨범을 추천해주신 분에게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 앨범을 다시 듣지 못 할 것 같아요. 트랩만 듣는 제겐 클래식이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요지 야마모토와 작업한 적이 있었다는 상식을 하나 배우게 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EDITOR  
감상주의  
(KMSNJUI)



EDITOR  
ryuzimoto

Album	ブギーポップは笑わない Boogepop and Others Original Soundtrack
Artist	Kensuke Ushio

우선, 감상주의님은 왜 이런 앨범을 추천했을까? 사실은 이 OST보다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더 나아가 우시오 켄스케(Kensuke Ushio)의 음악을 꺼낸 척하면서, 실은 <부기팝은 웃지 않는다>라는 이 낯설고 기묘한 세계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내가 괜한 추측을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여튼, 찾아보니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는 매드하우스. <요수도시>, <투파전설 아카기>, <카이지> 등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만든 제작사라 한 번 볼까요? 싶었지만, 우선은 보류했다. 물론 애니를 보지 않고 OST만 감상 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지.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진실된 감상일지도

이 OST는 정말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사운드의 질감이 가볍게 훌날리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묵직하게 심연 아래로 가라앉는다. 장면을 보지 않았음에도 음악만으로 그 어두운 분위기에 동화된다.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앰비언트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한 곡 한 곡이 사연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헤려듣기보다는 조용히 앉아 집중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이 앨범의 진가가 드러난다. 현실에서 살짝 비껴선 어딘가에서 끝없이 부유하는 감각. 이 애니메이션이 점점 더 궁금해진다. 하지만 감상하는 건 조금 더 주의하기로 했다.



EDITOR  
SONGCHICO



EDITOR  
blvckmvtter

Album	L.D.K. Lounge Designers Killer
Artist	capsule

유튜브에만 존재하는 90년대 일본 런웨이 뮤직을 추천한 사람 치고는 너무나 정상적인 앨범을 추천받아버렸습니다. 2005년, 무려 필자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네오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2020년대의 디지코어를 듣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즈네 미쿠를 듣는 것 같으며 때로는 그저 chill한 시부야케이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은 듯한 이 앨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요? 3일간 총 33시간의 작업, 왕복 9시간 거리로의 2박 3일 MT, 드럼 연습과 싱싱미역 상태에 이은 6시간의 과제 이후 마주한 이 앨범은 피곤한 탓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아름답네요.



# 사람들은 왜 Doechii를 싫어할까?

EDITOR  
moogsick



이쯤 됐을 때 도치(Doechii)의 2024년을 되짚어보자. 3월 발표한 JT와의 합작 싱글 "Alter Ego"는 그 과정이 어떻든 그녀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하우스를 접목한 감각적인 비트와 중독성 있는 혹은 입소문을 타기에 안성맞춤인 요소들이었다.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였는지, 솟 폼 컨텐츠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바이럴 마케팅은 댓글 창마다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 차게 만들었지만 말이다. 다만 그 중에서도 필자를 비롯해 Isaiah Rashad, Smino, Janelle Monáe의 앨범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걸출한 피처링 벌스를 기억하던 이들은 안타까움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난다고 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린다는 목표만큼은 달성했기에 "Alter Ego"와 곡에 뒤따른 촌극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보는 게 맞겠다.



Alter Ego (with JT)

24. 3. 29

일단 도화선에 붙은 불은 빠르게 타들어가며 발화를 알렸다. 문제작 〈Alligator Bites Never Heal〉은 수상 전부터 리스너들에게 알게 모르게 입소문을 탔던 작품이었다. Ice Spice, Sexyy Red 등의 근래 떠오른 여성 래퍼들과 다르게 정석에 가까운 탄탄한 래핑을 구사한다는 점도 고평가의 이유였고, 현재는 바이럴의 질료로 전락해 버렸으나 대표곡 "DENIAL IS A RIVER"가 MF DOOM 탑입 비트를 재편곡한 것이라는 사실 등 마니아에게 어필할 포인트 역시 충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위 '싹수가 보이는' 신예를 극도로 애정하는 Pitchfork에서도 7.0이라는 고점을 부여하며 밀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앨범 자체는 처참한 완성도로 맴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매된 Katy Perry의 〈143〉에서 몇 안 되는 인상적인 지점 역시 도치가 참여한 트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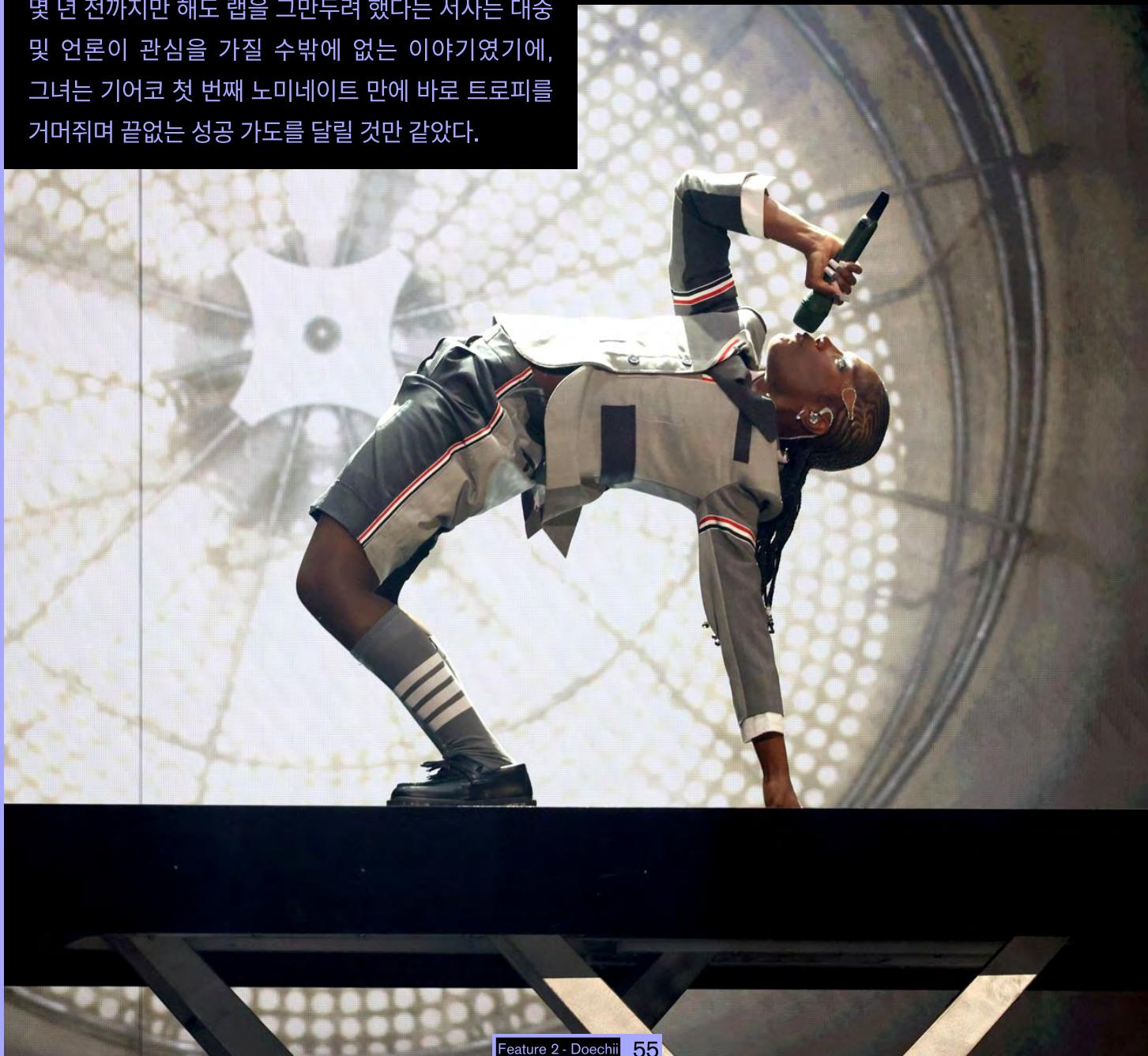
Alligator Bites Never Heal  
24. 8. 30

여기서 우리 모두 잠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도치를 향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든, 분명 〈Alligator Bites Never Heal〉은 사실상의 메이저 데뷔작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퀄리티의 음반이었으며, 객원 래퍼들이 전부 훌륭한 퍼포먼스를 뽐냈던 〈CHROMAKOPIA〉에서 "Balloon"은 당당히 최상위권에 꼽힐 만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 힙합 씬의 아이콘이자 대중과 힙스터를 모두 아우르는 아티스트 Tyler, the Creator의 쇼케이스를 통해 단박에 주목도를 올린 그녀는 본격적인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다. "DENIAL IS A RIVER" 뮤직비디오와 챌린지, 바이럴 최적화 도입부의 "ExtraL" 피처링, 그리고 하이프의 끝을 알린 2025년 2월 2일의 그래미. 그리고 그날 도치의 잔혹사가 막을 올렸다.



그래미의 기이한 후보 선정에 대해서부터 월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하나 명심하여야 할 전제는, 같은 해 Kendrick Lamar의 제너럴 필드 2관왕과 The Weeknd의 보이콧 철회 등 그래미 측은 충분히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배경을 함께 생각했을 때 도치의 수상은 아주 큰 이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Taylor Swift의 빌보드 200 독주를 막고 장렬히 산화한 디트로이트 레전드나 마지막 트랙을 뒤늦게 삭제해 버린 '빅 3'보다 타당한 주인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Future와 Metro Boomin 혹은 Common과 Pete Rock에게 돌아가야 했다는 마니아들의 볼멘소리도 함께 들려왔고, 이는 결국 훗날 그녀를 공격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 중 하나가 되었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건 인상적인 시상식 퍼포먼스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랩을 그만두려 했다는 서사는 대중 및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기에, 그녀는 기어코 첫 번째 노미네이트 만에 바로 트로피를 거머쥐며 끝없는 성공 가도를 달릴 것만 같았다.

그다음은 모두가 익히 아는 이야기다. 슈퍼 루키가 'Industry Plant'로 전락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팬데믹 시절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던 "Anxiety"는 정식 발매 이후 빌보드 Rhythmic Airplay 1위 및 핫 100 9위에 진입하며 크게 히트했으나 도리어 그러한 과한 재생이 발목을 잡아 밴 쥐금을 받았다. "Somebody That I Used To Know"라는 명곡을 망쳤다는 프레임이 붙은 시점 세상에 나온 "Timeless" 리믹스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다. 하필 그 대상이 컬트 제왕인 Playboi Carti의 곡이었기에, 또 도치의 랩 역시 비트에 전혀 녹아들지 못했기에 빛어진 결과다. 러시안 룰렛의 총알쯤으로 여겨지는 현상황, 그녀는 정말 이대로 몰락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원성에 비해 도치의 위치 자체는 공고하다. Morgan Wallen의 대침공 이후에도 유지 중인 차트 성적과 멧 갈라를 통해 만들어낸 화제를 보라. 돌연 제기된 태도 논란은 그 적절성과는 별개로 비판하기 위한 이유를 찾으려는 움직임에 가깝고, 'forced hate' 이라 맞서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팬층을 쌓는 데 성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졌던 시기 내놓은 Westside Gunn의 "EGYPT" 리믹스에서는 에너지레벨을 한순간 끌어올리는 랩을 뱉으며 실력을 다시금 자랑하기도 했다. '바이럴로 흥한 자, 바이럴로 망한다'는 경구를 가져오기엔 그 체급 자체가 상당히 커진 것이다. 상술한 서사와 더불어 호불호가 덜한 스타일 덕에 대중적 인기는 이미 다소간 확보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 보자. 도치는 힙합 팬들에게 단단히 박힌 미운털을 딛고 쇄신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뻔한 이야기지만 래퍼, 아니 모든 아티스트는 결국 작업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자신이 "Alter Ego" 후 <Alligator Bites Never Heal>로 보여 주었듯, 혹은 Lil Nax X가 "Old Town Road"에서 <Montero>로 나아갔듯.

EDITOR  
moogsick







EDITOR  
moogsick

<b>Album</b>	<b>八方来财</b>
<b>Artist</b>	<b>揽佬 (SKAI isyourgod)</b>
<b>Released</b>	<b>24. 8. 20</b>

- |         |            |
|---------|------------|
| 1. 八方来财 | 7. 鹤立鸡群    |
| 2. 香车豪宅 | 8. 善恶终有报   |
| 3. 念慈菴  | 9. 文化沙漠种绿植 |
| 4. 六爻   | 10. 姚记     |
| 5. 大展鸿图 | 11. 加油卡    |
| 6. 因果   |            |

숏폼 컨텐츠에 중독된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강아지나 초록색 외계인처럼 합성한 고양이가 중국어 랩을 뺏는 영상을 본 적 있을 테다. 해당 삽입곡("因果")의 원작자이자 근래의 여타 신예들처럼 바이럴을 통해 인지도를 얻은 란라오(揽佬 SKAI isyourgod)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펜 앤 픽셀 스타일의 커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멤피스 트랩을 메인 장르로 삼은 음반은 그가 단순 맘으로 뜯 반짝 스타가 아니라 내실을 갖춘 뮤지션임을 단박에 각인시킨다. SNS에서 인기를 끈 두 곡부터 살펴보자. 상술한 "因果"와 최근 SNS 챌린지가 잇따르는 "八方來財"은 각각 중국 향로 ASMR의 배경음과 인순이의 "비닐장판의 딱정벌레"를 샘플링했다. 특히 그 출처부터 범상찮은 후자는 메트로 부민의 'Runnin'을 연상케 하는 절묘한 차핑이 인상적이다. 더 나아가 수록곡 전체의 비트 퀄리티는 예상을 훨씬 상회한다. <Savage Mode II>만큼의 섬세함은 지니지 못했을지언정,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기에 비트만으로도 들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번역기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란라오의 래핑 역시 탄탄하다. 중국 남부 광동성 출신인 만큼 출신지의 억양과 방언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었으며 마약 규제가 엄격한 사회 분위기 탓에 트랩의 작법을 도박, 고리대금업 등으로 변용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와중 "양치할 때도 컵 두 개를 겹쳐"와 같이 스테레오타입을 비튼 라인이 소소한 재미를 준다. 고비는 단 두 가지, 언어의 장벽과 중국 힘합을 향한 선입견만 걷어낸다면 참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음반이다.



EDITOR  
김상주의  
(KMSNJUI)  


<b>Album</b>	<b>Worlds</b>
<b>Artist</b>	<b>Porter Robinson</b>
<b>Released</b>	<b>14. 8. 12</b>

- |                      |                        |
|----------------------|------------------------|
| 1. Divinity          | 7. Hear the Bells      |
| 2. Sad Machine       | 8. Natural Light       |
| 3. Years of War      | 9. Lionhearted         |
| 4. Flicker           | 10. Sea of Voices      |
| 5. Fresh Static Snow | 11. Fellow Feeling     |
| 6. Polygon Dust      | 12. Goodbye To a World |

어쩌면 우리는 이미 OZ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든가, 포스트-인터넷 키드라는 말로 불리고 있지 않은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내 머릿속에만 있던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이 일도 아닌 독학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니버스'이며 상상력이다. 단지 게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마련돼있고, 구현할 만한 실력도 웬만큼 갖추고 있다. 모두가 힙스터 이자 전문가가 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테크놀로지를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하다. 그런데 음악 중에서 가장 디지털에 근간한 일렉트로니카, 특히 EDM 씬은 의외로 이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아차렸다. 물론 M83이나 Daft Punk 앞에서 감히 그가 최초라고는 못하겠다. 그럼에도 <Worlds>는 획기적이었으며, 포터 로빈슨(Porter Robinson)은 남들보다 앞선 기획자였음이 분명하다. 그의 일렉트로 팝은 판타지 MMORPG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가 즐기던 거의 모든 오타쿠적 문화 코드가 즐비한 종합 콘텐츠다. 때로는 로봇 소녀와의 운명적 만남이라는 명백한 콘셉트로, 때로는 사이버펑크 속 하라주쿠 스터프(!)라는 이스터에그로 말이다. 놀랍게도 <Worlds>는 베타 버전에 불과했다. 어느덧 우리는 "Shelter"에서 린을 만나 오열하고, "Cheerleader"의 키구루미 팬덤 일원이 돼, 그간 라이브 투어로 그와 파라소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말이다.



1. Alice
2. Grey skies
3. Forever salty
4. Life so far
5. I'll be there
6. Gajówka
7. Hum it to a google
8. Wooden girl
9. Live too fast
10. LA
11. With you
12. Makes you wo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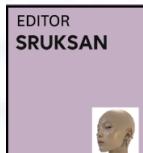


Album	Basspunk 2
Artist	Bassvictim
Released	25. 1. 30

베를린과 런던, 두 도시의 클럽에서 연달아 마주친 한 프로듀서와 한 보컬. 남자와 여자는 처음엔 서로에게 썩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이한 우연을 기념하고자 밴드를 결성했고, 직접 무대에 설 파티까지 열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서고 싶은 무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탄생한 파티의 이름은 "I was a victim of the bass"였고, 훗날 이 문구는 이들의 그룹명인 Bassvictim으로 이어졌다. 결성 계기부터 남다른 기운을 풍기던 Bassvictim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듀오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랑한다고 밝힌 Charli XCX는 한 세대를 정의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Bladee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음악적 파묘'를 이어가던 음악 산업은 여러 아티스트들의 노력으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의 미감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이른바 '블로그하우스(bloghouse)'라 불리는 이 움직임은 DIY 정신과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며, 작년 Charli XCX에 이어 올해는 FKA Twigs와 Lady Gaga가 이를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렸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흑역사가 아닌, 현재의 음악 트렌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Bassvictim의 연작 시리즈는 블로그하우스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음악적 취향은 분명히 '그 시절'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음악 트렌드를 예상하는 듯하다. 귀를 강타하는 베이스 뮤직과 촌스럽고도 정신 나간 듯한, 기묘한 균형 위에 선 보컬 퍼포먼스는 시대를 막론하고 먹히는 법이니까.



1. Scene 1
2. Scene 2: The Run
3. Hard Truth (Feat. Candice Hoyes)
4. Scene 3 (Feat. Kyle Kidd)
5. Scene 4 (Sovie)
6. Camera
7. The Truth Is Out There
8. Scene 5: Breathing Fire



Album	The Film
Artist	Sumac & Moor Mother
Released	25. 4. 25

"우리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메탈 밴드 수맥(Sumac)과 음유 시인 무어 마더(Moor Mother)가 만나 음울한 장편을 연출해낸다. 이 리얼리즘 필름에는 희망 따윈 없다. 이들이 축조한 황무지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불타며 종국에는 파멸을 향해 달려간다. 무어 마더의 스포큰 월드가 수맥 특유의 어두운 사운드와 만나 거대한 노이즈 — 혹은 불협화음 — 를 빚어내는데, 아방가르드함과 일종의 규칙성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굉장한 파장을 자아낸다. 무어 마더는 형식적인 운율을 조각내는 방식으로 수맥의 추상화된 연주를 서포트하고, 수맥은 둠 사운드와 같은 리프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무어 마더의 폭발에 리듬감을 마련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탐구할 시간을 벌어주고, 공격포인트 지점에서 훌륭히 점수를 생산해내는 과정의 연속. 상반된 스타일이 결합, 즉, 충돌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일종의 앱스트랙 힙합(Abstract Hip Hop)이 연상될 정도로 단단한 토대가 형성되는데, 특히 마지막 트랙 "Scene 5"에서 〈The Film〉의 모든 스타일이 집약된다. 고조, 호흡 고르기, 명상, 그리고 Boom. 올해 발매된 프로젝트 중 가장 의외의 협업이면서도, 가장 완성도 있던 덩어리. 한계를 초월한 진짜들이 만나면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그런 진짜들은 반대편에서도 서로를 알아본다.

**Album** Face Down In The Garden**Artist** Tennis**Released** 24. 4. 25

- |                     |                                |
|---------------------|--------------------------------|
| 1. At The Apartment | 6. Through The Mirror          |
| 2. Weight of Desire | 7. I Can Only Describe You     |
| 3. At The Wedding   | 8. 12 Blown Tires              |
| 4. Always The Same  | 9. In Love (Release The Doves) |
| 5. Sister           |                                |

연인으로서 15년, 부부로서 14년, 그리고 밴드 테니스(Tennis)로서 10년. 8개월간 바다를 항해하며 시작된 엘레나 무어(Alaina Moore)와 패트릭 라일리(Patrick Riley)는 정규 <Face Down in the Garden>을 끝으로 음악가로서의 여정에 작별을 고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 충분히 납득되는 이유다. 여정, 사랑, 권태, 자아 성찰, 이별과 재회, 그리고 자연 – 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겪고 노래한 이들에겐 더 이상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도, 또 그럴 의무도 없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때까지의 모든 음악적 시도를 완벽히 조율한 피날레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수년간의 다져온 견고한 프로덕션은 인트로 트랙 “At the Apartment”부터 귀를 사로잡는다. 로파이를 가장한, 그저 완성도가 떨어지는 곡들이 즐비한 시대 속 더욱 돋보이는 반짝이는 하이파이 사운드. 살아보지 않은 시절조차 그리워하게 만드는 “At the Wedding”, 혹은 떠나가는 그들에게 저절로 손을 흔들게 되는 “12 Blown Tires”를 비롯한 아름다운 사운드의 나열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더 슬프게 만든다. 그러나 잠시 감정을 뒤로한 채 냉철하게 바라보자면, 특정한 기억을 바탕으로 써내려가던 가사를 대신해 앨범은 여느 인디 팝이나 어울릴 법한 두루뭉실한 내용을 담는다. 더 이상의 이야기거리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놓아줘야 한다. 또 한 번 배를 띄우는 이들이 다시 물으로 돌아올 때에는 어떤 마음을 낚시해 올지 모르겠으니, 나는 그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실루엣을 바라만 볼 뿐이다.

**Album** The Scholars**Artist** Car Seat Headrest**Released** 25. 5. 2

1. CCF (I'm Gonna Stay With You)
2. Devereaux
3. Lady Gay Approximately
4. The Catastrophe (Good Luck With That, Man)
5. Equals
6. Gethsemane
7. Reality
8. Planet Desperation
9. True/False Lover

The Who의 1969년작 <Tommy>를 시작으로 야망을 품은 젊은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록 오페라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음악을 녹음하며 시작된 카 시트 헤드레스트(Car Seat Headrest) 역시 처음부터 이러한 록 오페라적 정신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의 대표작 <Twin Fantasy>는 청춘 로맨스라는 분명한 주제를 반복적인 모티프로 풀어낸 서사시였고, <Making a Door Less Open>에서는 Trait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정체성과 유명세에 대한 단편적 탐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오페라 형식을 음악에 도입한 것은 바로 <The Scholars>다. 가상의 대학 파르나수스와 인접한 광대 학교를 무대로 등장인물 간의 자아 탐색과 내부 갈등, 사회적 긴장을 다룬 하나의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구축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교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카 시트 헤드레스트는 그 서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다. 트랙들은 전체 이야기와 연결되기보다는 개별 감정이나 장면에 집중되어 있고, 청자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ARG나 보조 설명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이 작품을 단일한 스토리텔링의 오페라라기보다는, 흩어진 기억과 감정들로 이뤄진 청춘의 몽타주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명확한 구조 없이 흘러가는 19분의 “Planet Desperation”은 본작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관통하는 트랙이다. 야망은 가득하나, 정작 이들은 그 야망을 음악으로 구현해 내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다.

**INTRODUCING**

LOVE ON DIGITAL by DESTIN CONRAD  
 Of the World by quinn  
 Jonatan by Yung Lean  
 Glockaveli by Key Glock  
 Pinball 2 by MIKE & Tony Seltzer  
 Midnight Blassic by ApolloRed1  
 Unmusique by Lucy Bedroque

**FULL REVIEW**

Lifetime by Erika de Casier  
 Fancy That by PinkPantheress  
 GOLLIWOG by Billy Woods  
 Sincerely by Kali Uchis  
 13 Months of Sunshine by Aminé

**CLASSIC**

The Unseen by Quasimoto  
 Ye by Kanye West

**FEATURE**

- <sup>1</sup> 제 4회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sup>2</sup> 사람들은 왜 DoeChii를 싫어할까?

**EDITOR'S PICK**

八方来财 by 揽佬 (SKAI isyourgod)  
 Worlds by Porter Robinson  
 Basspunk 2 by Bassvictim  
 The Film by Sumac & Moor Mother  
 Face Down In The Garden by Tennis  
 The Scholars by Car Seat Headrest

**EDITOR**

blvckmvttter  
 denim  
 moogsick  
 ryuzimoto  
 SONGCHICO  
 loding  
 SRUKSAN  
 감상주의(KMSNJUI)  
 자카  
 온암

**DESIGNER**

잠소

Instagram

@hausofmatters

Official Website

hausofmatters.com